

“생명 걸고 기도하면 다음세대 영적으로 되살아날 것”

연세기독학부모회, ‘2025 거룩한 성회 기독 학부모 연합집회’ 개최

연세기독학부모회(대표 장유미)는 6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새 시대 믿음의 지도를 완성하라’는 주제로 ‘2025 거룩한 성회 기독 학부모 연합집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고성준 목사(수원하나교회 담임)이 ‘시대의 도전자들(히 2: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 목사는 “좋은 건물을 설계도대로 지어진 것으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산다면 우리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대로 저주는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두신 복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을 때 임한다”며 “대학 시절 공려함에 허덕이다 선배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거듭나 내 삶은 창조주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걸임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어려움을 돌파하는 능력도 주신다”며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홍해와 ‘요단강여리고 성’이라는 이름을 막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에게 계획하신 부르심의 길을 따

르도록 부모들이 지지해야 한다. 그곳에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고 목사는 “한민족의 DNA는 생명을 건 기도로 그 열매가 바로 현재 세대의 풍요함이다. 이처럼 이 세대가 기도한다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며 “한국이 기도에 특화된 민족인 이유는 한이 많기 때문이다. 저주인 한은 100년 전 들어온 십자가를 통해 축복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돌파가 일어난다”고 했다.

그는 “이 시대 진리로 포장된 미혹은 황금만능주의, 진화론,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막시즘이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5기지 미혹에 휘둘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의 영향으로 첫째, 과학영역에선 진화론, 종교영역에선 창조론을



고성준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노형구 기자



기도하는 학부모들의 모습. © 노형구 기자

된 것으로, 거짓이다. 창조주는 쓸모와 관계없이 사람을 귀히 창조하셨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이성과 사실은 부정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현상의 사실 여부를 규정하는 태도다. 좋고 싫음의 반응이 진리의 판단 근거가 돼 버린 것”이라고 했다.

고성준 목사는 “넷째, 타락한 본성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로 여기는 인본주의적 사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사람의 정신이 황폐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는 할 일을 할 때

행복해진다. 다섯째, 문화마시즘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허물고 공산주의 사회를 앞당기자는 것이다. 이는 동성애, 폐미니즘 등 생별남성가정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되는 싸움을 지속한다면 선함이 창출된다는 변증법적 사고에 기초 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시한 자신의 선택을 유일한 진리로 상

정하며, 분노를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여기는 악함이 발생한다. 특히 여기서 파생된 희생자 이데올로기는 가해자를 지정해 분노를 쏟는 사회적 풍조도 문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나, 분노를

동기로 삼는다면 이는 반기독교적 요소”라고 했다.

고 목사는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올바른 방향을 갖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며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영·혼·육의 풍요는 이전 세대의 기도에 기인하며,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도 언젠가 반드시 다음세대는 되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학부모들이 다음세대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이들은

기도가 참 기도가 되고, 순종이 참 순종이 되는 회개의 문을 여는 기도’ 시대의 죄악을 짚어지고 무너진 청년다음세대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는 기도를 제목으로 기도했다.

한편, ‘거룩한 성회’는 연세기독학부모회(연기모)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2023년 선포한 ‘전국 기독학부모 연합’ 비전에서 시작돼, 지금까지 연세대의 복음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국 각지의 학교에 학부모 기도회를 세우는 데 힘써왔다.

2023년 제1회 집회를 시작으로, 2024년 제2회 집회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부모와 중보자들이 참여해 교육과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운동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각 학교로 돌아가 기도회를 조직하거나 기존 모임과 연대하며 학부모 중심의 기도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

특히 ‘영적 암양 무브먼트’를 중심으로 한 신앙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이 운동은 청년·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대 간 연합 기도를 통해 실천하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기독 학부모-기독교사(교수)-기독학생’이 함께하는 ‘삼겹줄 전략’을 통해 학교 현장의 신앙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노형구 기자

교회의 정치 참여, 어떤 태도로 어디까지 해야 하나?

목회자·전문가 참여한 ‘한국교회 열린 토론회’ 열려

최근 우리나라는 정치적 격변을 심하게 겪으면서 ‘교회의 정치 참여’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교회는 세속 정치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참여해야 하는가’는 지난 수년간 교회 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이에 한국교회 주요 목회자들과 전문가들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담임 이기용 목사)에서 이 주제로 토론회를 갖

고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이기용 목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상학 목사(새문안 교회),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박성민 목사(CCC 대표),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 장동민 교수(백석대), 전석재 교수(서울신대), 최윤식 미래학자가 패널로 나섰다.

한기채 목사는 “교회와 정치의 목적은 서로 다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세속 정부는 정의와 자유를 실현하는 데 더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교회는 세상에 성경적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더 높은 차원에서 세속 사회에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윤식 미래학자는 “정치 아님을 가지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이 심화하면 사회는 내전으로 치닫게 된다. 이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성도와 국민”이라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다. 성도가 그 부분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훈 목사는 “목회자가 정치에 대해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성급하게 답을 주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다”며 “바로 답을 주려 하다보면 정당과 정치인에게 이용당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전석재 교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변하고 그 가치로 세상을 바꿔가는 것 이 교회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 등 소외 계층을 돌아보는 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건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성경의 원리와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학 목사는 “정치는 교인들이 살아가는 물과 같다. 교회에서 아무리 맑은 물을 주어도 세상의 물이 혼탁하다면 교

인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며 “따라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어떤 이념과 사상, 철학이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 목사는 “성경적 정치는 진리 중심이 돼야 한다. 반면 왜곡되거나 병든 교회의 정치 참여는 진영 중심”이라며 “교회가 선부르게 진영 논리에 참여해서 특정 이념을 사수한다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교회의 이미지가 특정 정파와 동일시 되면 교회는 쇠약하고 그 정체성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박성민 목사는 “교회가 성경에 근거해 이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 ‘사람들의 필요에 얼마나 공감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성경의 원칙을 이야기 하되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교회가 정치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장동민 교수는 “교회와 정치는 결코 떨 수 없다. 전통적으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해방 후 반공주의와 산업화가 필요할 때 교회가 선두주자가 되어 정부와 함께 일하므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성립했다”며 “교회가 그 때마다 시대정신을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했던 것”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그러므로 시대정신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로 바뀌고 있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 패널들. (왼쪽부터) 최윤식 미래학자, 전석재 교수, 장동민 교수, 김문훈 목사, 박성민 목사, 한기채 목사, 이상학 목사, 이기용 목사(좌장) © 김진영 기자

는 지금, ‘과연 어떤 시대정신을 정립하고 여기에 맞는 정치체제를 상상해야 하는가’ 이것이 교회와 목회자가 풀어야 할 과제”라며 “다만 가장 고난받고 펑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의 모체”라고 했다.

한편, ‘한국교회 열린 토론회’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교회와 정치’ 이외에도 ‘교회와 사회’, ‘교회와 미래’라는 주제로도 토론을 이어갔으며, 위에서 언급한 패널들 외에도 이인호 목사(더 사랑의교회), 박명룡 목사(청주서문교회), 김형근 목사(순복음금정교회), 남빈 목사(뉴송천교회)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좌장을 맡았던 이기용 목사는 “우리가 차이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그것 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교회재산 소유와 사용, 예배·복음전파·이웃사랑에 맞춰야”

(사)한국교회법학회, ‘교회재산의 사유화방지와 공공성 확보’ 주제 학술대회 개최

(사)한국교회법학회가 6일 오후 서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국제회의실에서 ‘교회재산의 사유화방지와 공공성 확보’라는 주제로 제36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사)한국교회총연회, 한국교회미래단이 후원했다.

인사말을 전한 이정의 목사(신촌교회 원로, 학회대표회장)는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림으로 제도화되고, 숫자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대변되어 급기야 근년에 와서 교회 인구가 줄어들어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며 “불행하게도 영적 신앙이 없어져서 우리가 바라는 실상인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오늘 발제되는 내용들이 한국 교회에 큰 울림이 되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먼저, 서현제 교수가 ‘교회재산은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 교회, 지역사회와 이웃 섬기기 위한 공적 자산

서 교수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교회의 소유와 주권은 사람이나 제도, 재산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법 질서 내에서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 공동체’이며, 법적 주체인 비법인사단으로서 교회재산을 종유의 형태로 소유한다. 이렇게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재산이 대부분 교인들의 현금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사적 소유인 종유 재산은 교회정관과 종회결의에 따라 교인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의 막대한 재산은 선대의 현금과 부동산 가액 상승의 결과인데 재산형성에 별로 기여한 바 없는 현재 교인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



(사)한국교회법학회 제36회 학술세미나 참석자 단체 사진. ©장지동 기자

리”라며 “오늘날 한국교회는 종교인 과세, 인권 조례, 사회적 가치의 다원화 등 새로운 법적 윤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법학회가 교회의 자유를 수호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성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 나아가 한국교회법학회가 교회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한국 교회가 다시금 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 지혜의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먼저, 서현제 교수가 ‘교회재산은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그는 “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인들이 영적 교제를 하며 안식을 취하는 집이다. 교회는 현재 교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의 교회이었으며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신앙자산”이라며 “또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단지 그 교회 교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와서 기도와 예배와 안식을 얻는 장소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한 공적 자산이기도 하다”고 했다.

아울러 “교회재산의 소유와 사용은 언제나 예배,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에 맞추어야 한다”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영성이 필요하다. 예배당은 지역사회와의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재정은 사회적 약자와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라

고 전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는 ▲김상용 교수(연세대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가 ‘교회재산의 소유형태로서의 종유제도’ ▲송삼용 목사(하늘양식교회, 법신학연구소 소장)가 ‘교회재산 귀속에 관한 미국 판례이론’ ▲백현기 변호사가 ‘지교회의 부동산을 종교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법률 관계’ ▲김영근 회계사(한국교회세무재정 연합 대표)가 ‘부동산 명의신탁과 세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교회재산관리, 사랑으로 해결해야”

김상용 교수는 “종유는 공동소유의 한 유형이다.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의, 종유의 세 가지가 있으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다 규정하고 있다”며 “공동소유는 인적 공동체의 소유에의 반영이다. 공동소유자들의 인적 결합관계가 가장 느슨한 공동소유가 공유이며, 인적 공동체가 조합으로 결속하여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가 합유이며, 인적 공동체가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결속된 공동체의 공동소유 형태가 종유이다. 그러므로 인적 공동체의 인적 결합의 강도에 따라서 공유, 합의, 종유의 순으로 강한 결합상태를 반영한다”고 했다.

이어 “종유의 주체는 비법인사단이다.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지교회의 정관과 또는 교단헌법으로 규약을 삼게 되어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제를 갖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함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사단법인등기 도 하지 않음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게 됨이 일반적”이라며 “따라서 교회재산의 소유주체는 비법인사단인 교회이며, 교회소유의 재산은 종교인의 종유에 속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교회는 인적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라며 “교회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교회가 사랑으로 관리하고, 교회재산을 둘러싼 분쟁도 사랑으로 풀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자연법이 지향하는 자연법론”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능한 사랑으로 교회내부의 분쟁을 회피, 조정, 중재 등의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법을 통한 사랑의 실천의 한 방법”이라며 “그리고 지교회명으로의 부동산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점이 많은 명의신탁의 방법보다는 지교회명으로 등기함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국교회의 책임적 자치 제도화, 교회재산 공공재 회복 방향
송삼용 목사는 “미국 판례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분명하다. 법은 교회의 교리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해도 그 자율성은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 속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며 “이 원리는 한국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회재산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이 서로 동역자란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과 섬김, 헌신을 통해 국민을 잘 섬기는 정치를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현일 목사(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는 “교회재산의 소망을 주는 기독 국회의원이 되어 모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나리와 국민 대통합과 국회’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어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현금기도’를 드렸으며, 국회의원들은 “또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한국교회는 교회재산을 공공재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해석 및 운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최초 등기 시점부터 재산의 법적 성격과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예방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사후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 예방적 조치 중요”
백현기 변호사는 “우리 법체계는 교회 부동산이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된 경우 등기라는 형식보다 실질적 소유관계를 중시하여 지교회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 및 운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최초 등기 시점부터 재산의 법적 성격과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예방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세금 문제에 관해
김영근 회계사는 “명의신탁거래에서는 부동산 실명법상의 법적 실질, 사적 자치의 원칙, 실질과 세원칙에 의한 실질과세, 거래의 법적 정당성 그리고 지방세법과 국세법에서 세제에 관련된 법적 정의 등이 어울려서 세금이 과세되고 있다”며 “하지만 세금은 실질과 세원칙에 따른 담세력에 무게 중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이 실질과 세원칙과 더불어 고리감없이 판단되는 것이 가장 정당할 것이다”며 “나 지금 현실은 거리감이 있다”며 “그래서 명의신탁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법적 실질과 세금과 세원칙의 양극단으로부터 거래의 실질이 처한 위치를 빨리 확인하고, 규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일 수 있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 나라와 국민 대통합 위해 기도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 11월 정기예배 드려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11월 정기예배를 열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 나라와 국민 대통합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최형우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의 인도로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의 대

표기도,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의 성경봉독, 소금과 빛 교회 엘루 하친양대의 특송에 이어 박석환 목사(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해 장유 소금과빛교회)의 설교 등으로 진행됐다.

박석환 목사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독 국회의원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분만을 바라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갖고 국민을 위해 열정으로 섬기기를 바란다”며 “또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

고 예배가 마무리됐다.

이어 송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회장)과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이 서로 동역자란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과 섬김, 헌신을 통해 국민을 잘 섬기는 정치를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현일 목사(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 11월 정기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조찬기도회

신생명나무교회는 “나라와 국민, 국회를 위해 기도하는 국회조찬기도회는 창립 6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적

자산”이라며, “12월에는 기념예배와 성탄 트리 점등식을 갖는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EWP 한국동서발전 | 주

나이지리아, '기독교 박해 중단' 요구에 대응… 美 "이슬람 무장세력 소탕 준비"

트럼프 대통령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보호 못 하면 직접 행동할 것"… 텐부 대통령 "종교 자유 보장 위해 노력 중"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독교 박해 중단' 요구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4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몰라 아메드 텐부(Bola Ahmed Tinubu)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종교 자유를 확고히 지키고 있다"며 "종교 박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텐부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2023년 이후 우리 행정부는 기독교와 이슬람 지도자 모두 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종교 갈등이 아닌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이지리아가 종교적으로 불관용한 나라도 묘사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텐부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모든 종교 공동체의 보호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소셜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는다면, 미국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즉시 모든 대외 원조와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무력 개입까지 고려하겠다"며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완전히 소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이미 군사

통해 "무고한 기독교인의 실해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나이지리아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직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의 리리 무어(Riley Moore) 의원은 텐부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경고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제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동안 나이지리아를 다시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CPC 지정은 종교 자유를 체계적으로 침해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제

재 또는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제도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20년 나이지리아를 처음 CPC로 지정했지만, 2021년에는 "폭력이 종교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근거로 해당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기독교 박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오픈도어스(Open Doors)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의 수보다 나이지리아에서만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약 1,600만 명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기독교인이 박해로 인해 고향을 떠났으며, 그 대부분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픈도어스는 소말리아, 리비아, 수단 등도 나이지리아와 함께 '기독교 박해 고위험 국가'로 지목했다. 지난 1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나이지리아에서만 3,100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고, 2,830명이 납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은 이슬람

율법(나이지리아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26%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북부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2등 시민으로 취급받으며, 이슬람에서 개종한 신자들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하고,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는다"고 밝혔다.

CDI는 올해 들어서도 박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플래토(Plateau) 주 보코스(Boko) 지역에서 52명의 기독교인이 대규모 공격으로 살해됐다. 나이지리아 북부 기독교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종교적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 국제기독교연대(ICC)는 6월 한 주 동안 중부 지역에서 85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됐다고 보고했다.

7월에도 카두나(Kaduna)주에서 7명의 기독교인이 피살됐으며, 이 중 5명은 어린이였다. 계속되는 공격은 나이지리아의 종교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승연 기자

정신질환 앓는 파키스탄 기독교인, 신성모독·테러 혐의로 체포돼

정부 부패 고발 후 해고·가족 탄압 이어져…

인권단체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성모독죄 적용은 명백한 인권침해"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부패 고발과 종교적 차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6일, 편자브 주 오카라(Okara) 지역 후즈라 사 무기암(Hujra Shah Muqeem)에 거주하는 리시드 마시(Rasheed Masih)는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이슬람과 정부를 비난하는 영상을 활용해 종교적 갈등을 조장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파키스탄 형법 295-A조(종교 모독, 298조, 124-A조(반국가 선동), 그리고 '반테러법'(Anti-Terrorism Act) 9조를 적용했다.

리시드의 아들 나빌 라시드(Nabeel Rasheed)는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부파와 부당해고 문제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다"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악용해 누군가 아버지를 핵심으로 빼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차별받았고, 동료 무슬림 직원들이 개종을 강요했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적대의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라시드는 라시드가 한 시골 보건소에서

정신 노동자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지만 부파와 정부 물품 절도 문제를 내부 고발한 뒤, 상부는 그를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켰고 결국 2018년 1월 해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라호르 고등법원과 편자브 주 읍부즈맨 사무실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 비용과 실직으로 인해 가정은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다. 아들 나빌은 "부모님은 세 자녀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아버지의 정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말했다. 가족은 리호르 종합병원 정신건강센터와 편자브 정신의학연구소에 라시드를 입원시켰으나, 그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이어 "아버지가 정직하고 선한 분이지만, 신앙 때문에 오랫동안 억압받아 왔다"며 "부파를 드러낸 사람들에게 암시를 품은 이들이, 그의 정신적 약점을 이용해 허위 혐의를 씌웠다"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 나즈마 라시드(Najma Rasheed) 역시 정부기관의 보복성 인사 조치로 외딴 지역으로 자주 전보되고, 몇 달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가족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라시드를 변호하고 있는 기독교인 변호사 라자르 알라 라카(Lazar Allah

가 그 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 법들이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신질환자도 여전히 자경단식 폭력이나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고, 신성모독 혐의는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파키스탄의 정신건강 시스템은 인력과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

Rakha)는 "파키스탄 형법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방어 조항이 존재한다"며 "형법 84조(정신 이상 방어조항)와 형사소송법 464조(정신 이상자의 재판 불가 규정)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The advertisement features a large, smiling child in the foreground, looking directly at the camera. Behind her, other children are visible, some smiling and some looking away. The background shows various industrial and construction scenes, including a ship under construction, a factory interior, and a wind farm at sea. The LS logo is prominently displayed in the bottom left corner. The text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is written in blue at the bottom of the advertisement.

뉴욕 첫 무슬림 시장 탄생… 우간다 출신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 젊은 세대의 열광 속 당선

생활비 부담 완화·보편 복지·임대료 동결 공약으로 시민 마음 사로잡아

뉴욕이 역사상 처음으로 무슬림 시장을 배출했다. 우간다 출신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34)가 4일(현지시간)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투표가 마감된 오후 9시 기준 개표율이 75%에 달했을 때 맘다니는 86만 327표(50.4%)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70만 4,866표(41.3%)로 2위에 머물렀으며, 공화당의 커티스 슬리워(Curtis Sliwa) 후보는 12만 8,400표(7.5%)로 뒤를 이었다.

맘다니는 2020년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남아시아계이자 우간다 출신으로서는 최초의 의원이었다. 우간다 캄팔라에서 태어나 일곱 살 때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했으며, 영화감독인 아버지와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인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다. 브롱크스 과학과 재학 시절에는 학교 최초로 크리켓팀을 창설했고, 보든칼리지에서 아프리카 학을 전공했다.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는

지역사회 조직가이자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으며, 올해 초 시리아계 예술가 라마 두와지(Rama Duwaji)와 결혼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브루클린 개표 현장에서 압승을 거둔 맘다니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의 변두리에 있던 인물이었다"며 "그의 세련된 소셜미디어 전략과 풀뿌리 운동이 젊은 유권자, 유색인종, 그리고 첫 투표자들을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맘다니의 선거 캠페인은 뉴욕 시민의 일상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렌트비 상승, 보육비 부담, 식료품 가격 인상 등 생활비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종세, 임대료 동결, 보편적 보육 서비스, 무료 대중교통, 시영 식료품점 설립, 최저임금 30달러 인상 등 진보적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공약은 특히 청년층과 서민층의 강한 지지를 받으며 선거 들풍을 일으켰다.

최승연 기자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미국 정치의 다양성과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뉴욕시가 무슬림 사회주의자를 시장으로 선택한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도시의 가치와 정체성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통일,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세기총, 시드니서 제56차 기도회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이하 세기총)가 최근 호주 시드니 리비터교회에서 ‘제56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기도회’를 개최했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가 사회를 본 기도회에선 먼저 준비위원장 진기현 목사(세기총 호주 지회장)가 환영사를 전했다. 진 목사는 “세계 각국에서 호주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며 1889년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한국과 호주의 선교와 625전쟁 당시 호주군의 희생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16만 명의 한인 동포들이 호주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이번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평화통일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기총 전기현 대표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자신이 직접 겪은 625전쟁의 아픔을 회상하며 “그 비극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준 것은 오직 믿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기독교인은 평화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명자”라고 강조했다.

박광철 목사(세기총 상임회장)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평화통일을 꿈꾸며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실현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라고 강조했



세기총 제56차 한반도 자유 평화통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세기총



세기총 대표회장 전기현 장로가 대회사를 전하고 있다. ©세기총



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기총

다. 이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고 전했다.

이날 기도회는 정득수 선교사(메시코 지회장)의 대표기도, 배임순 목사(미동북부 여성사역위원회)의 성경봉독, 지구촌 사랑워십선교단의 특별찬양 등으로 진행됐다. 특별기도 순서에서는 유헨호 목사의 인도로 △한반도 자유평화통일과 세계평화(임홍재 선교사) △호주 복음화와 한인교회 부흥(이현수 목사)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영적 성장(이승현 목사)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

격려사에서 김요셉 목사(법인인사장)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러 오셨다”며 “사명자는 죽는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영 목사(제6대 대표회장)는

“세기총은 교단이 아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세워진 세계선교 기관”이라며 “이번 호주 기도회를 통해 5대 양 6대 주 기도회 완수라는 뜻깊은 열매를 맺었다”고 밝혔다.

류병재 목사(오세아니아 회장-시드니 리비터교회 담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기도가 10년 만에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다”며 북한 동포 지원의 사명을 강조했다. 조광한 후원이사(홍보기획단장)는 “세기총이 전 세계 103개 지역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연합의 저력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기도회에선 감사장 전달식도 열려, 전기현 대표회장이 류병재 목사, 진기현 목사, 송상구 목사(오세아니아 사무총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

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고, 이 상열 목사(상임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신광수 사무총장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세기총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700만 디

아스포라와 함께 기도의 연합으로 복음의 빛을 전 세계에 비추는 일에 힘쓸 것”이라 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한 번의 태그로 나눔이 시작됩니다”

구세군, NFC 자선냄비로 97년 전통에 혁신 더해



(왼쪽부터) 김병윤 사령관, 이사벨 홍보사 사 ©구세군

구세군이 97년 전통의 자선냄비에 첨단 기술을 결합하며 ‘디지털 나눔 시대’의 문을 열었다. 구세군 한국군군사령관 김병윤은 최근 서울 종로구 구세군빌딩에서 ‘2025 자선냄비 캠페인 NFC 모금 도입 기념행사’를 열고,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반의 ‘원태그(One-Tag) 스마트 기부 시스템’을 공식 발표했다.

자선냄비는 지난 1928년부터 이어져온 구세군의 대표적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올해로 97번째 겨울을 맞는다. 구세군은 사회 전반의 ‘현금 없는 시대’ 흐름에 맞춰 2020년부터 QR코드 기부를 도입했고, 올해는 한 단계 진화한 NFC 방식을 새롭게 선보였다.

스마트폰을 자선냄비 기부판에 ‘태그(tag)’하기만 하면, 별도의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14초 안에 결제가 완료된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와 신용카드를 모두 지원한다.

구세군은 “한 번의 태그가 새로운 나눔 문화를 이끌어간다”며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기부가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NFC 기부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한 결제 편의성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모금 관리 체계에 있다. 기부 시점과 위치,

참여 빈도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모금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지역별 참여 추세에 따라 맞춤형 나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구세군은 이를 통해 “세대 간, 지역 간 기부 접근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자선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윤 사령관은 “한 번의 태그가 새 나눔 문화를 만들어간다”며 “디지털 세대와 함께 구세군의 100년 전통이 미래 기술과 만나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나눔이 더 가까운 일상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이웃 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돋는다”라며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스마트폰을 통해 울려 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롭게 도입된 NFC 자선냄비는 오는 12월 가기 모금 현장에 시범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전국 주요 상권과 교회, 프랜차이즈 매장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구세군은 “디지털 기부의 확산이 단순한 모금 수단의 혁신을 넘어, 이웃 사랑의 연결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오직 성령 충만을’ 부산에서 ‘어게인 심령대부흥회’ 열린다

민족복음화 부울경본부, 11월 13~14일 가야교회서 개최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는 1977년 여의도광장 대성회의 역사적 부흥을 계승해 설립된 단체로, ‘회개·전도·성령운동을 3대 사명으로 삼고 있다. 부울경본부는 이러한 비전을 지역 교회들과 함께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목표로 출범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첫째, 한국교회의 철저한 회개운동과 성령운동·전도 운동으로 민족복음화를 이루고 둘째, 코로나 때 없어진 1만 교회의 회복과 100만 영혼을 구원하며, 셋째,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본부장 김문훈 목사(부산 포도원교회)는 “이번 집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수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했다.

총괄본부장 박상철 목사(모리아교회)는 “신앙의 본질 회복에 초점을 맞춰 말씀과 기도, 찬양에 집중하는 부흥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사로는 안호성 목사(물맷돌교회)와 임영규 목사(라이트하우스 서울숲교회)가 나선다.

부울경본부는 “이번 부흥회를 시작으로 지역 교회와 함께 민족복음화의 비전을 실현하며,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향한 사역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안산동산고, ‘수능 촛불 기도회’ 개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최근 저녁, 고3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 촛불 기도회’를 개최했다.

학교 측은 “후배 재학생들이 직접 촛불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리며, 수능을 앞둔 선배들의 마음에 평안과 응기를 전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져 왔으며, 학생들이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도 했다.

한 수험생 학생은 “시험에 가까워 오면서 마음이 불안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졌다. 내 노력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도 속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영 기자



안산동산고 학생들이 ‘수능 촛불 기도회’에서 ‘빛이 돼라’는 의미의 ‘be the Light’를 촛불로 형상화 하고 있다. ©안산동산고

동아제약

동아보감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증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생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의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반의약품 60포(23g × 10포 × 6)

경옥고

동아제약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알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50년, 복음의 등불로 다음 세대와 열방 향해”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드려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송경원 목사)는 지난 11월 2일(주일),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연합 감사예배를 드리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반세기 동안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교회가 속한 남침례교단의 주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자리해 경건하고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성도들은 교회 창립 이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격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남침례교단 주요 목회자들은 교회의 지난 혁신과 수고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송경원 담임목사는 “반세기 동안 변함 없는 은혜로 타코마제일침례교회를 세우고 지켜주시며 복음의 등불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며 “지난 50년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현장의 모습. ©교회 측 제공

은혜였고, 성도들의 믿음과 눈물의 헌신이 오늘의 교회를 굳건히 세웠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앞으로도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한

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나아가자”고 권면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토대를 세운 문창선 원로목사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



예배에서 설교하는 Jeff Iorg 박사 ©교회 측 제공



왼쪽부터 이태경 목사, 강승수 목사, Lance Caddel 사무총장, 문창선 원로목사 ©교회 측 제공

고, 교회 개척을 도와준 레이크우드 제일침례교회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38세의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여러 차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다”며 “잔양이 넘치는 교회, 다민족이 함께 예배하는 국제적인 교회가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듯, 앞으로도 타코마제일침례교회를 통해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배에서는 남침례교단 총회장 제프 아이오그 박사(Dr. Jeff Iorg, 전 계이트웨이신학교 총장)가 “과거를 기념하고 미래를 계획하다”(설전21-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아이오그 박사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낸 교회”라며 “앞으

로의 50년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의 참된 성공은 건물의 크기나 재정 규모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삶에 있다”며 “앞으로도 순수한 복음을 지키며 복음의 능력으로 더 많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에는 주요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50주년을 축하했다.

이태경 목사(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장, 엘파소중앙침례교회)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성도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민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를 듣는 힘 세워왔다”며 “사랑이 넘치고, 전도가 활발하며,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계속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Lance Caddel 사무총장(Northwest Baptist Convention)은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를 마쳤다.”

로, 지역과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왔다”며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성경 위에 굳건히 서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강승수 목사(한인 남침례총회 총무)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지켜온 성도들, 문창선 원로 목사님과 송경원 담임목사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50년이 더욱 기대된다. 하나님께서 타코마제일침례교회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 중에는 캐나다,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의 선교사들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타코마제일침례교회가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계속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날 예배는 송경원 목사의 죽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민선 기자

美교회들 “한국교회, 종교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수호해야”

글로벌복음주의교회연합
성명 발표

임하라”며 “한국교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교회와 시민들은 교회와 국가의 현법상의 정교분리를 위협하는 공포와 억압의 정치에 저항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성경적 책임을 공유한다”며 “우리 미국 교회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다수가 이끄는 현 한국 정부가 한법상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비민주적인 공포 정치와 일방적인 독자입법을 종식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140년 전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미국 교회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거짓, 불의, 악행, 불법에 대항하여 복음을 위해 담대히 일어설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미국 교회들은 한국 목회자들이 현재 한국의 위기가 영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성경적 분별력을 구하며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대응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미국 교회들은 한국 목회자들이 친공산주의 단체들이 조장하는 ‘평화’ 또는 ‘평화 통일’이라는 거짓 주장에 속지 않기를 기도한다. 공산주의가 한국을 장악하면 수백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과 자유 대한민국을 옹호하는 사람



미국 글로벌복음주의교회연합의 성명을 발표한 케빈 월드롭 박사 ©글로벌복음주의교회연합

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면서 “한국 교회들이 중국 공산당의 보안법과 감시 통제 하에서 흉흉의 자유가 어떻게 억압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이것이 한국에 대한 현재의 경고가 됨을 인식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GECA는 “우리는 한국의 종교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을 위해 기도한다”며 “한국 기독교인들은 연합하고, 굳건히 서서, 거짓 선전에 맞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이 영적 싸움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세계 최고 IQ’ 김영훈 씨 “성경 진리 억압… 미국에 망명 신청”

“저는 악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다.

이어 “한 나라가 진리를 침묵시킬 때,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떠오를 것”이라며 신앙적 결단을 드러냈다.

김씨는 망명 발표와 함께 올린 추가 게시물에서 현 정권을 “친북 반기독교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더 이상 한국 구속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사건을 가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교계에선 이에 대해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예수님이 전하면 범죄가 되는 사회를 만들었다”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에서 진리의 편에 서고자 한다”고 말

리 커크(Charlie Kirk)가 피격된 사건 이후, SNS에 “그의 사명을 이어받아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비중양집권적 자율조직(DAO) 형태의 ‘지적 보수주의’ 운동을 세워, 신앙과 자유의 연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달,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함께 모이자”며 미국 내 한인 보수 기독교 네트워크 형성 움직임을 예고했다.

김씨는 SNS 프로필에서 자신을 ‘세계 최고 IQ 276의 기록 보유자’로 소개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신학석사(M.A.) 과정을 밟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시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신앙을 공개 고백한 바 있다.

학문과 신앙을 병행하며, 그는 “지적 능력은 진리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인간의 지성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다”고 말해왔다.

노형구 기자

**B E Y O N D
E N T E R T A I N M E N T
E L E V A T I N G
E X C I T E M E N 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풀러스친구

카카오톡 풀러스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톡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유튜브 ‘관종’, 사랑에 목마른 현대인의 자화상”

제20회 성령 컨퍼런스

유튜브와 SNS에서 관심을 얻기 위해 무리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이른바 ‘관종(관심증자)’ 현상—LA백송교회가 이러한 현대인의 뒤틀린 욕구의 뿌리를 ‘사랑의 결핍’에서 진단하며, 영적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던졌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인정과 관심을 얻기 위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관심으로도 영혼의 공허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2일 열린 제20회 성령 컨퍼런스 ‘부흥을 부르는 치유(8) –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창조적인 사랑’ 집회에서 김성식 목사(LA백송교회 담임)는 현대인의 병든 자화상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하나님의 사랑 회복’만이 진짜 치유라고 강조했다.

LA백송교회는 지난 10월 25일 이순희 목사 초청 창양콘서트를 시작으로, ‘부흥을 부르는 치유’라는 주제로 11월 5일까지 11일간 매일 성령 컨퍼런스를 진행했

다.
◆사랑을 구걸하는 사회… “관종은 사랑 결핍의 외침”

이날 메시지에서 이순희 목사는 호세아 11장 1~9절을 본문으로, 무조건적 사랑만이 인간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임을 선포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는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달리진다”며, 사랑 결핍은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 결혼, 부모 역할, 자아 정체성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어릴 때 채워지지 못한 사랑은 결혼 후에도 계속 외로움으로 남습니다. 돈과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목사는 사랑 결핍의 사회적 부산물로 ‘관종’ 문화를 언급했다.

“사랑받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관종이라고 부릅니다. SNS에서 관심을



LA백송교회 성령 컨퍼런스 현장의 모습. ©교회 측 제공



이순희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교회 측 제공

사랑의 문제를 꼬집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조건부 사랑이 많습니다. 부모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자녀는 스스로를 부적절한 존재로 여기며, 항상 긴장 속에서 사랑을 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6-7을 인용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고 강조했다.

◆호세아가 드러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 목사는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불드시는지 설명했다.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다. 바알·아세라 숭배 의식은 영적 음란뿐 아니라 육체적 음행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바알이 여신 아스다롯과 성관계를 맺어야 비가 온다고 믿으며, ‘거룩한 창녀’라 불린 여사제가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의식을 행했다.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총은 30개의 가치)으로 음행한 안내 고멜을 다시 데려온 사건은, 하나님께서 영적 불륜에 빠진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의 상징으로 해석됐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범벅이 된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성령 컨퍼런스는 이벤트성 집회를 넘어, 성령의 기름부음 안에서 영적정서적·관계적 영역의 온전한 치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성암교회, 5주년 감사예배 “주께 가는 길이 참된 생명의 길”

두명의 권사 임직식 및 새신자 전도 축제 열려



성암교회(담임 김요한 목사)는 2일 오전 11시 교회 본당에서 설립 5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 드렸다. 이날 예배는 5주년 기념을 비롯해 새신자 전도 축제 및 두명의 권사 임직식도 겸해 거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김요한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이날 예배는 5주년 기념을 비롯해 새신자 전도 축제 및 두명의 권사 임직식도 겸해 거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김요한 목사는 “요한복음 10장 11~18 절을 본문으로 ‘진짜 다이아몬드를 찾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팬데믹으로 세상이 멈춰 있을 때 천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후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음을 준비하게 하셨고 공원에서 예배드리며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행복한 공동체의 의미를 경험했다”며 “지금 이 예배 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자리는 ‘여기까지 하나님도 도우셨다’는 애벤데렐의 고백이 담긴 자리다. 성암교회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는다. 지난 5년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한인 커네티)는 “좋은 나라란 인류에 이 바지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나라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도, 신실한 일꾼을 세워야 한다”며 “유익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선교에 힘쓰며, 리더십을 존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상면 목사(생명샘교회 원로)는 권문사에서 “임직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에 기둥이 세워지는 것과 같다. 기둥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욱 견고해진다”며

“‘소명은 하나님께 부르신 것이고, 사명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모든 성도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임직받은 권사들의 간증이 있었다.

박헬렌 권사는 “지난 8주 동안 권사 교육을 받으며 권사라는 직분이 이렇게 중요하다. 임직은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아서, 가꾸는 것은 본인들의 끓이다. 두 분 권사님을 통해 성암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크리스 죄 목사(CRC교단 Thrive 소속

가연주 이후 이지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지현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부노회에서 목사로 임직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까지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목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성직을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이날 목사 안수 및 장립식 이후에는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진행되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이지현 강도사는 성경통신대학을 졸업하고(1990), UCA 학사 및 석사(2018)를 마치고, 아멘교회(고 이재성 목사)에서 동역했다. 조셉 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이지현 목사 안수 및 장립식 거행



가연주 이후 이지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지현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글로벌총회 서부노회에서 목사로 임직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까지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목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성직을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이날 목사 안수 및 장립식 이후에는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진행되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이지현 강도사는 성경통신대학을 졸업하고(1990), UCA 학사 및 석사(2018)를 마치고, 아멘교회(고 이재성 목사)에서 동역했다. 조셉 리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안정적 수익률 14.67 %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검색하세요!

직장선교 44주년 '제37회 직장선교 전국대회 및 제39회 예술제' 개최

11월 8일 서울 종로 새문안교회서 언더우드홀에서 열려



(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대표회장 이훈 장로, 이하 한직선)가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지하 2층 언더우드홀에서 '제37회 직장선교 대회 및 제39회 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직선은 44년 전 '모든 직장에 직장선교회를,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사명으로 설립된 초교파 평신도 선교단체로, 전국 40개 지역연합회와 42개 직장연합회, 8,000개 직장선교회를 아우르는 단체로 성장했다. 매년 11월 초 열리는 직장선교 전국대회 및 예술제는 1년 간 한직선 본부와 전국 지역, 직장연합회에서 추진해 온 직장선교의 성과를 격려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뜻을 모으는 한 해 중 가장 큰 규모의 성회다.

올해는 '직장선교, 성령의 능력으로 도약하라'(행 1:8)는 주제로 전국 직장선교

회원이 참여하여 직장선교 예배를 회복하고, 직장선교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비전과 결의를 세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직선은 지난 9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40일 동안 120명의 직장선교 기도용사가 하루 한 키 릴레이 금식을 하며 중보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1부 예배는 안찬을 한직선 총괄 본부장의 인도로 시작되어, 최재항 동해 지역연합회장이 대표기도를 하고, 양성문 경찰청선교회 총무의 성경 봉독 후 한국직장선교협창단(지휘 이숙경, 단장 최성환)이 특별찬양을 통해 은혜를 전할 예정이다. 설교는 안성복 세린교회 목사가 '성도의 승리'(산상 17:45)라는 제목으로 전하며, 이훈 대표회장의 대회사, 오광석 이사장의 환영사, 박홍일 명예이사장의 격려사, 이영환 지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다.

2부 '직장선교 44주년 사례발표 및 예술제에서는 고령욱 꿈꾸는교회 목사가

이지희 기자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한다'는 주제로 특강을 전한다. 이어 한국직장선교대학, 원주직장선교연합회, 경기직장선교연합회, 전북직장선교연합회 등 4개 지역 및 직장 연합회가 모범적인 직장선교 사례를 발표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나눈다.

찬양 예술제에는 울산지역연합회, 경기경찰청선교회, 보험기관직장선교연합회(교보생명FP) 나주지역연합회, 서울시 청기동선교회 등 총 5개 단체가 중창 및 합창으로 출전하여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심사위원 장기웅 교수, 오창호 테너의 심사평과 시상식을 마친 뒤에는 CCM 사역자 송정미 씨가 은혜롭고 영감 있는 찬양으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릴 예정이다.

이훈 대표회장은 "올해의 직장선교를 결산하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술제를 진행하면서 친切한 직장선교를 활성화하고 기독교 부흥의 견인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제4회 칼 귀츨라프 글로벌 한글백일장 개회식 성황리 열려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정신과 독일 선교사 칼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ützlaff, 1803~1851)의 한글 세계화 업적을 기리는 '제4회 칼 귀츨라프 글로벌 한글백일장 개회식'이 최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글학회(회장 김주원)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귀츨라프가 1832년 11월에 발표한 한글 논문인 「Remarks on the Corean Language(한글에 대한 소고, 1833년 7월에 발표한 「The Corean Syllabary(한글의 음절체계)」를 조명하고, 2032년 '칼 귀츨라프 한글세계화 200주년'을 앞두고 해당 논문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UN 제7공용어 한글 채택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WKWA) 조구자 총재는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과 귀츨라프의 애민과 혁신 정신을 오늘에 잊는 것이야말로 한글의 진정한 세계화"라며 "한글이 인류의 소통 언어로 확산되고, UN 제7공용어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가 협력하자"고 말했다.

귀츨라프한글문화원 노광국 대표도 개회사에서 "귀츨라프 논문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고 한글을 UN 제7공용어로 채택시키는 일은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과 귀츨라프의 세계화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또 "귀츨라프한글문화원은 학문·문화·선교·산업을 잇는 브릿지뉴딜문화운동을 통해 한글 세계화를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축하 연주와 축사, 격려사 순서가 진행됐다. JB포럼 손영철 대표가 대독한 서면 축사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832년 7월 17일 칼 귀츨라프가 첫발을 내디딘 배령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귀

출일장'의 주제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한글을 최초로 세계에 알린 칼 귀츨라프 선교사' '귀츨라프와 원산도 갑자의 추억이며, 미주 한인 압양인 모국방문단 아시아페밀리스(Asia Families)와 함께 한 귀츨라프 선교지인 인천·보령 원산도·제주도' 체험수기를 포함한다.

심사 기준은 주제의 명확성(40점), 글의 짜임새(30점), 문학적 표현(30점)이며, 원고 마감은 12월 5일까지 이메일(easttrust@naver.com)로 접수하고, 수상자 발표는 12월 24일, 시상식은 2026년 1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귀츨라프한글문화원

골치 아픈 세금문제, 세무사가 해결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쁜 좋은 세무 파트너 송선호 세무사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교회, 목회자 세금신고

법인세, 소득세

세무상담 02-3295-3300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고문세무사 차삼준

- 전국 15개 세무서근무
-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및 송무업무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팀장
- 삼성세무서 재산세과장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국 조사관리팀장
- 종로, 서초세무서 법인세 과장

다음세대를 살리자

말할 수 없는 고통, 소리 없는 총알 '왕따'

집단 따돌림과 소외 현상,
아이들 사이의 문제

학교 폭력·글로벌 문제로



신지율
학생회원

◇왕따란?

왕따는 무엇일까?
왕따의 정확한 정의는 어떤 집단 또는 무

리에서 특정한 대상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 또는 그 피해자이다. 흔히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이 왕따라는 명칭 또는 현상은 사실 공식적으로 정의가 된 용어가 아니다. 제대로 된 표현은 '집단 따돌림' 혹은 '집단 괴롭힘이 맞다. 왕따는 1990년대 후반쯤(1997년으로 추측)에 신조어로 시작하여 현재 흔히 쓰이는 속어가 되었다. 이 '왕따'라는 속어가 퍼진 뒤, 학생들 사이에서는 '찐따', '띠' 등 유사한 비속어들이 파생되며 조종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국 청소년개발원에서는 학교에서 다수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2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심리적·언어적·신체적 폭력, 금품 강취 등을 행하는 것을 집단 따돌림으로 정의한다. 흔히 왕따, 즉 집단 따돌림이 단순히 학교와 교실이라는 어린이들의 세계에만 속하는 문제라 오해하는데, 사실 왕따 문제는 회사 혹은 동호회 등 성인 사회, 어른들의 사회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이며,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글로벌 과제로도 볼 수 있다.

◇왕따, 학교폭력의 또 다른 얼굴

집단 따돌림과 소외 현상의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나 갈등 등으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집단 따돌림은 사이버 폭력,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성폭력 등 형태가 다양하고, 선생님 또는 부모님 같은 도와줄 수 있는 어른들이 알아채기 어려운 문제이며,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학창 생활을 망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또한 아직 정서적으로 발달이 완벽하지 않은 학생들은 왕따를 당하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 상처와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학교 폭력 형태 중 하나이다.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2019년 8월 27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학생이었던 410만 명 중 372만 명(90.7%)이 조사에 참여했고, 이중 약 6만 명(1.6%)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18년 13.6%, 2017년 9.0%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3년 연속 피해 응답률이 증가했다.

학년별로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3.6%, 중학생이 0.8%, 고등학생이 0.4%

였다. 2018년과 비교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0.8% 포인트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은 0.1%포인트 증가했고, 고등학생은 동일했다. 가해자는 같은 반 학우가 가장 많았고, 다른 반 학우가 뒤를 이었다. 피해 장소는 교실(30.6%)이나 복도(14.5%)가 가장 많았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이버 공간이라는 응답이 10%를 넘겨 세 번째로 많았다.

◇학교폭력 속에 갇힌 청소년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문에 응답한 398만 명의 학생 중 6.8만 명 정도가 학교폭력을 경험해 보았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다양했다. 언어폭력부터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모두 집단 따돌림에서 발견될 만한 행위들이다. 이 중 언어폭력이 2023년 37.1%, 2024년 39.4%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 폭력(17.3%, 15.5%), 사이버 폭력(6.9%, 7.4%)이 그 뒤를 이었다.

◇"내가 학교에서만 괴롭힐 것 같나?"

학교 밖에서도 괴롭히는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 사이버 왕따는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핸드폰과 컴퓨터 등이 실용화된 현재 시대에서 점점 늘어나는 학교폭력이자 왕따 행위 중 하나이다. 특히 핸드폰 또는 전자기기 사용량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며, 학교폭력에서 사이버 폭력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사이버 폭력의 형태로는 대개 단톡방, 복방이라고 불리는 SNS의 단체 채팅방에서 한 사람을 특정지어 폭언 또는 폭설을 해 정신적 충격을 주거나, 인물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리거나,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게시판, 플랫폼 혹은 커뮤니티 등에서 조종 메시지와 악성 댓글을 달고, 심하면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유출하는



집단 따돌림과 소외 현상의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나 갈등 등으로 치부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것 등이 있다. 인터넷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어 피의자를 잡기 어렵고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 1,0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 이상(20.1%)은 온라인상에서 따돌림이나 육설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번 이상 겪었다고 답한 비율도 3%나 되었다. 흔히 '사이버 불링'이라 불리는 이 행위로 인해 많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고, 심리적 피해를 준다.

◇소외되는 이들을 구하는 방법

우선 소외된 사람들은, 혹은 따돌림 피해자들을 돋는 게 우선이다. 정신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심리 상담 등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학생 피해자인 경우에는 주위 부모님, 또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앞에 말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제대로 처벌받은 학생은 전체에서 약 3%에 불과하며, 증거 불충분이 그 이유로 꼽힌다. 화면 캡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에 카톡을 나가는 바람에 증거가 소멸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병원 진단서와 화면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실제로는 교육지침에서도 1~3호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왕따, 집단 따돌림은 이제 전 세계적 문제로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제 이 따돌림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며, 우리 모두 그리고 스스로도 따돌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지율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8학년(문화비전코리아 학생회원)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교회, 목회자 세금신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고문세무사 차삼준

- 전국 15개 세무서근무
-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및 송무업무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팀장
- 삼성세무서 재산세과장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국 조사관리팀장
- 종로, 서초세무서 법인세 과장

세무사 송선호

- 충북과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사
- 국세청 영세납세지원단 세무사
- 서울시 마을세무사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사 송선호

시리아 가톨릭 대주교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다”

국제사회 긴급 개입 촉구

시리아 중부의 시리아 가톨릭교회 수장이 “기독교가 시리아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긴급한 개입을 촉구했다. 자크 무라드(Jacques Mourad) 대주교는 로마에서 열린 행사에서 “교회는 죽어 가고 있다”며 “지금 개혁과 안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독교 공동체의 붕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가톨릭 구호단체 ACN(Aid to the Church in Need)에 따르면, 무라드 대주교(홀스하마나비 관할)는 “시리아 기독교인 탈출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재앙적 정치경제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다.

ACN이 최근 발표한 ‘세계 종교자유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시리아 내 기독교 인구는 2011년 약 210만 명에서 2024년 약 54만 명으로 급감했다.

무라드 대주교는 “세계 교회와 지역 교

회의 모든 노력이 실패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신앙이 아니라 절망적인 국가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개혁과 치안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이탈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이슬람국가(IS)에 납치됐다 5개 월 만에 탈출했던 무라드 대주교는, 새 정부(아메드 알사리 대통령 체제) 하에서도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과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리아의 상황을 아프가니스탄에 비유하며 “종교의 자유나 인권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크리스나우(Crus Now)는 전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 체결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골란 고원 통제권 이전 가능성은 다마스쿠스의 수자원 접근을 위협하며 “도시 주민을 노예화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4년 12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 전역에서는 기독교 안드루스 알라위파 등 종교 소수자를 겨냥한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 알라위파 협회 모로하프 이브라 힘 박사는 워싱턴 의회 기자회견에서 “이

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계획된 테러



자살 폭탄 테러로 공격받은 마르 엘리아스 그리스 정교회의 모습.(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독일보 DB

캠페인”이라며, 외국 지하디스트·아사드

나 성노예로 팔려갔다”고 밝혔다.

잔당임시정부 연계 민병대가 폭력에 가 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인권단체 ‘인 디펜스 오브 크리

스천스’(In Defense of Christians)의 리처

드 가잘 사무총장은 “극단주의가 시리

아의 종교적 다양성을 대체하고 있다”며

“동서양의 신학적 다리아자 공존의 중재

자였던 기독교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시리아 임시정부에 소수 민족 헌법 보호 조항과 책임 메커니즘을 도입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잘은 또 “기독교 공동체의 생존은 국제사회의 외교적·법적 개입에 달려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리아는 2,000년 신앙 유산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2일 다마스쿠스의 마르 엘리아스 교회에서는 주일예배 도중 자폭 테러가 발생해 20명 이상이 숨졌다. 폭탄 조끼를 착용한 범인은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폭탄을 터뜨렸다. 이 사건은 인권 단체와 교계로부터 강력한 규탄을 받았다.

가잘 사무총장은 “이번 공격은 시리아의 고대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보여주는 현실”이라며 “매번의 폭력과 이주로, 시리아는 2,000년 신앙과 문화의 기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신앙 이유로 사형 선고 받았던 수단 기독교인 “수감 중 성경 몰래 읽어”

구호단체 ACN, 현지 상황 전해



마리암 이브라힘. ©Aid to the Church in Need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지금도 그때의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며 “사람들이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고 물으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많은 나라에서 성경을 소지하는 것 만으로도 테러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협이 아니라, 인류 모두를 위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브라힘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과 이탈리아 정부의 개입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

ACN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 ‘세계 종교의 자유 2025’(Religious Freedom in the World 2025)에 따르면, 수단의 종교 박해는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수단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이 기독교인 등 소수종교 박해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54억 명)가 “심각한 수준의 종교 자유 침해가 존재하는 국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경 기자

래퍼 니키 미나즈,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박해 규탄… “트럼프의 대응 지지”



미국의 유명 래퍼 니키 미나즈(Nicki Minaj)가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독교인 대상 폭력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이하 현지 시간)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글을 올려 “만약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계속 방지한다면, 미국은 원조를 중단하고 무력 개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쟁부(Department of War)에 군사 대응 준비를 명령했다”며 “공격이 시작되면 빠르고, 강력하며, 단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급진적 이슬람 세력이 이 학살의 주범”이라며, 나이지리아를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으로 재지정할 것을 시사했다. CPC는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국가에 부여되는 미국 정부의 제재 분류다.

이에 대해 미나즈는 X(옛 트위터)에 트

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글을 읽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녀는 “어떤 집단도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더라도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이런 참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대통령과 그의 팀에게 감사드린다. 박해받는 모든 기독교인을 위해 기도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미나즈의 발언에 일부 팬들이 비판을 제기하자 그녀는 “기독교인이 학살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성소수자 문제’로 돌리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에어포스원 탑승 중 기자들과 만나 “지상군 투입이나 공습을 포함한 군사 행동을 검토 중”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그는 로이터통신에 “나이지리아에서 기록적인 수의 기독교인이 살해당하고 있다. 우리

는 그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

다.
아예 대해 나이지리아 대통령실 대변인 다니엘 브왈라(Daniel Bwala)는 AP통신에 “국민의 일방적 군사 개입은 허용하지 않겠지만, 종교 공동체 보호를 위한 협력에는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피트 헥셋(Pete Hegseth) 전쟁부 장관 역시 “무고한 기독교인 살해는 즉시 멈춰야 한다”며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을 직접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이지리아는 수십 년간 북동부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와 중부 지역의 무장 유목민 세력의 폭력에 시달려왔으며,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는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살해되는 기독교인 중 절반 이상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다”고 경고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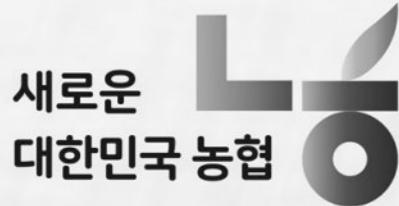
한편, 미국의 종교 자유 감시단체 국제 기독연대(ICC)는 트럼프의 CPC 재지정 검토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며 “수많은 피해 가정과 공동체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경 기자

힘센 충남! 대한민국을 부탁해!

대한민국 탄소중립경제를 이제, 힘센 충남이 신바람나는 북극곰의 춤처럼 신바람나게 이끌어 갑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충청남도





사계절맛 제철기부

사시사철 365일 기부가 제철입니다

사시사철 늘 맛있는 우리쌀로
제철기부에 보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우리 제철 농축산물을 선택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지자체
그리고 농협이 함께 합니다

NH 농협

#쌀의 효능

쌀은 위의 기를 평하게 하고
근육을 기르며 속을 따뜻히 해
기운을 돌으며 번열을 제거한다.
또한 소화기능을 가진
허약체질의 환자에게
식이 요법의 훌륭한 약재이다.

- 동의보감 쌀의 효능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담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담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 담례품 지급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 농축협
※ 기부 한도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법인 불가)

한국인, 체감 경제 '6년 내 최악' 수준… 행복감 하락·고립감 심화

CSES·트리플라잇 보고서

"경제 회복세에도 국민 심리 위축… 신뢰 회복 시급"

한국인이 느끼는 경제 상황이 최근 6년 사이 가장 부정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가치연구원(CSES)과 트리플라잇(주)이 6일 발표한 '2025 한국인 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경제 체감지수는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CSES는 SK그룹이 설립한 연구재단으로, 최태원 회장이 이사장

을 맡고 있다. 조사 결과,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는 2020년 5.13점(10점 만점)에서 2025년 3.88점으로 하락해 조사 시작 이후 최저 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 다수가 현재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행복 수준은 지난해 6.54점으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올해 6.34점으

로 낮아지며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사회문제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2020년 6.54점에서 2025년 6.97점으로 상승해, 역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한국 경제가 단기적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경제, 사회, 삶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신뢰와 심리 회복이 절실히"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사회적 관계의 약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다"고 답한 비율이 지난해 4.1%에서 올해 9.8%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셈이다. 연구진은 "경제적 비관과 외로움이 심화될수록 사회 불만이 커지고, 환경 문제나 기후 위기 같은 장기적 이슈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식의 차이도 뚜렷했다.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인식한 응

답자는 '소득 및 주거 불안', '고용 및 노동 불안' 등 경제 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았다. 반면 '중산층 이상'으로 답한 국민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자연 재해'를 주요 우려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는 경제적 안정 수준에 따라 사회문제 인식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올해 처음으로 기업 성장과 사회문제의 상관성을 수치로 제시한 '지속가능성 맵(Sustainability Map)'을 도입했다. 주요 산업별 30대 기업의 최근 2개

년 지속가능보고서를 분석해, 사회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4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연구진은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수록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진행해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

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보고서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는 수치상의 성장보다 국민 마음의 심리적 경기 회복이 더 절실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내 기자

美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부정적 기류 확산

보수·진보 대법관 다수 "IEEPA 근거한 관세 부과 정당성 의문"… 헌법상 권리 분립 논쟁 가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단행한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5일(현지시간) 열린 구두변론에서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관세의 법적 정당성이 회의적 입장

을 드러냈으며, 친성 입장은 명확히 밝힌 대법관은 단 한 명뿐이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이번 분위기로 볼 때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기반 관세 부과

를 지지할 가능성은 낮다"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대법관들이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현법적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대통령 권한 남용 우려… 보수·진보 모두 비판적
이날 구두변론에서 진보보수 진영의 대법관 다수가 IEEPA가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

최(major questions doctrine)을 언급했다. 그는 "행정부의 중대한 정책은 명확한 근거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학생대출 탕감과 기후변화 정책을 무효화한 판례를 상기시켰다.

◆트럼프 임명 대법관들도 회의적 반응

트럼프가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날 변론에서 가장 강경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사우어 법무차관을 상대로 "관세는 세금이며, 세금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가 전쟁선포권 같은 핵심 권한을 행정부에 간단히 위임할 수 없다"며 헌법상 권리 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역시 IEEPA의 해석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IEEPA가 수입 규제를 허용하지만, 관세 부과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며 "일부 국가에 대한 제한적 관세는 가능하더라도, 전면적 관세 부과가 비상사태 대응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길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보 진영, '관세는 의회 고유 권한'

강조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관세는 세금의 일종이며, 의회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비상권한 사용을 제한했던 대법원의 과거 결정을 언급하며, "같은 원칙이 트럼프 정부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의 관세는 거의 모든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결국 우리는 항상 비상사태에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발언은 법정 암팎에서 웃음을 자아냈지만,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체 남용을 비판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케린지 브라운 재스 대법관도 "IEEPA는 이전 법률보다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중한 캐버노토머스, 우호적 알리

토

보수 진영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대통령이 외국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폭넓은 재량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측에 다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적대적인 외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조정하고 전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브렛 캐비노 대법관은 "트럼프 이전 어떤 대통령도 IEEPA를 관세 부과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대통령의 위기 대응 수단을 제한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중대질문원칙과 권한불위임(non-delegation) 원칙을 언급하며, 양측의 법리적 입장을 폭넓게 평가하는 데 집중했다.

현재로서는 대법관 9명 중 6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최종 판결이 정부에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WSJ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마저 관세의 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면서, 행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홍은혜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꽉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진 피부 나이

10.6%

불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파운드 및 올리브영 매장

| 사용 7일 후, 인체 적용 시험 결과 | 사용 기간: 2023.01.25~2023.03.10 | 사용 대상: 성인 여성 30명 | 사용 기관: 주글로벌의학연구센터 |

북한, 미국 제재에 강경 대응…

"끝까지 적대시한다면 우리도 상응 대응할 것"

김은철 외무성 부상 담화 발표…

"미국의 제재는 실패한 정책의 상징으로 남을 것"

북한이 미국의 연이은 대북 제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며, 장기적인 대치 국면을 예고했다. 북한 외무성의 김은철 미국담당 부상은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현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은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 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단행된 대조선 단

독 제재는 미국이 우리 국가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미국의 대조선 정

책 변화에 대한 세간의 기대는 완전히 종

식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국이 상습적이고 전통적 인 방식으로 적대 의사를 다시 표명한 것에 대해 우리는 정확히 인식하고 재확인했다"며 "양반과 회유, 위협과 공갈로 가득한 미국식 거래 방식이 우리를 상대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의 제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대미 정책과 사고방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대조선 적대시를 체질화한 현 미 행정부의 제재 집념은 치유 불가능한 대조선 정책 실패의 상징으로 기록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상은 "미국이 제재 수단을 아무리 총동원해도 북미 간 전략적 구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는 없다"며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되풀이하면 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우매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담화는 미국이 최근 잇따라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직후, 연이어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의 불법 환적에 관여한 제3국 선박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하루 뒤인 4일 미 재무부는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IT) 인력 사업 등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출범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요청한 사례로, 양국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미국이 압박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홍은혜 기자

북한 해킹조직, 인권운동가 개인 PC 해킹 정황 드러나

카카오톡 통해 악성파일 유포 시도… 경찰 "표적 해킹 가능성 높아"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북한 인권운동가의 개인 컴퓨터를 해킹해, 그의 지원들에게 악성 파일이 첨부된 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메시지는 A씨의 지원인 약 30명에게 전달됐으며, '스터레스 해소법' 파일을 열어보라는 내용의 첨부파일에는 악성 코드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자신이 보낸 적 없는 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카카오톡 계정이 외부에서 무단으로 접속됐으며, 이를 이용해

지원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문자와 함께 악성 파일이 첨부된 메시지가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메시지는 A씨의 지원인 약 30명에게 전달됐으며, '스터레스 해소법' 파일을 열어보라는 내용의 첨부파일에는 악성 코드가 포함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전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 인권운동가를 겨냥한 표적 해킹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피해자 발생 여부와 범행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이버 해킹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박용국 기자

복음은 국경을 넘는다: 지하교회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크리스토퍼 심슨<사진>의 기고글인 '지하교회가 미국에 전하는 메시지'(The underground church has a message for America)를 5일(현지 시각) 게재했다.

크리스토퍼 심슨은 CBMC 인터내셔널의 회장 겸 CEO로, 이 단체는 1930년 미국에서 설립된 기독교 비즈니스 선교 단체로서,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비즈니스 및 전문직 리더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미국은 지금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의 중심에서 있다.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심지어 자국 안에서도 미국은 마치 전 세계의 다크판처럼 비난받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독교 국가"라 조롱당하고 있다. 언론은 미국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분열되

었다고 말하지만, 필자는 뉴스가 전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을 보았다. 적대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눈물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아시아 각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 마카오에 있었다.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본토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마카오로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카메라도, 환호도, 이들도 없이 눈빛에 결단이 서린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들은 관광객처럼 걷지 않았다. 세상 어떤 정권도 멈출 수 없는 나라의 사절단처럼,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걸었다.

강의를 마친 후, 한 여성이 필자에게 다가왔다. 그녀를 "에디스(Edith)"라 부르자. 그녀는 10년 넘게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역하며 임원들을 멘토링하고, 여성들을 제자로 훈련하며, 닫힌 문 뒤에서 교회를 세워온 믿음의 리더였다. 그녀는 필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미국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위해 계속 담대하게 서 주세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필자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제발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그들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이곳의 정부는 우리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세속 엘리트들이 듣는다면 불편해할 이야기를 덧붙였다.

그녀는 지금의 미국 행정부를 사랑한다고 했다.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약점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명함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녀의 말은 정직이 아닌 복음의 혈통, 즉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였다.

뉴스는 국가를 추적하지만, 하늘은 제



계표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들, 해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람과 다르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다르다. 지하교회는 약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사라져가는 소수가 아니라 이 시대 가장 강력하면서도 보도되지 않은 현실이다. 위기 소식으로만 들려오는 그 땅에서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고, 우리보다 더 깨어 있으며, 더 믿음이 깊고, 더 뜨겁게 미국을 사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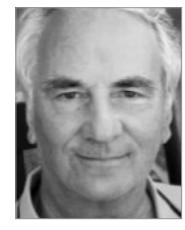
그러므로 필자는 미국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다. 눈을 들어라. 당신의 믿음은 이미 주목받고 있다. 진실한 담대함은 이미 당신이 모르는 교회들을 세우고 있다. 당신의 자유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중보의 대상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마지막을 버티는 이도 아니다. 당신은 하늘이 온 세상에 엮어놓은 거대한 가족의 일원이다. 그 가족은 지금도 공향과 회의실, 무역로와 기술 중심지를 통해 움직이고 있다.

강단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복음을 전한다. 에디스는 동정을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연대를 구했다. 그녀는 필자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우리는 당신들의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 이 글을 쓴다.

피와 살은 정부만큼 나눠지 않았고, 교회는 세상이 보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여전히 잘되고 있다.

최승연 기자

"영혼의 건강을 위한 30일 식단: 말씀으로 채워지는 참된 영적 영양"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제리 맥글로틀린<사진>의 기고글인 '영혼을 위한 30일 도전: 영의 양식을 채우라'(Feeding the spirit: A 30-day challenge for the soul)를 2일(현지시각) 게재했다.

제리 맥글로틀린은 현정 공화국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게스트를 대변하고 유대-기독교 윤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망한 홍보 기관인 스페셜 게스트(Special Guest)의 CEO로 재직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사람들은 몸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수천 달리를 들어 유기농, 천연,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구입한다. 칼로리를 세심히 계산하고, 첨가물을 피하며, 매일 영양제를 쟁겨 먹는다. 이는 하나님께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자례로운 자세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살과 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혼(soul)과 영(spirit)이 있으며, 이 두 부분도 매일의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의 영혼, 즉 생각과 감정, 지성은 끊임없이 정보를 섭취한다. 모든 뉴스, SNS 게시물, 대화 하나하나가 우리를 고양시키거나 소모시킨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먹이는지가 결국 우리의 인격을 빚어낸다. 분노와 두려움, 부정적인 것을 계속 소비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그 식단을 닮아간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영양 공급이다. 영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우리의 영원한 부분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은 하루 세 번 몸을 채우면서도, 영혼은 몇 주씩 굶기고 있다. 그들은 '영적 패스트푸드'에 의존한다. 하루 말씀 한 절, 짧은 팻캐스트 하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한 곡. 잠시 맛은 좋지만 금세 사라진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 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4)

참된 영적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서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음미하는 데서 자란다. 영혼의 성장도 건강한 식사처럼 준비와 묵상이 필요하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 이다 형통하리로다"(시편 1:2-3)

이것은 '패스트푸드' 신앙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신앙이다. 이제 작은 실험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최승연 기자

을 상상해보자. 다큐멘터리 <슈퍼 사이즈 미>가 보여준 것처럼, 사람이 패스트 푸드만 먹고 살면 어떻게 될지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보면 어떨까? 30일 동안 오직 '영적 음식'만 먹는다면? 한 달 동안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불평 대신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걱정은 평안으로 바뀌고, 낙심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의 영은 강건해지고, 믿음의 뿌리는 더 깊어질 것이다. 아마 이사야 40장 31절의 약속처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다."

잠언 30장 8절은 균형 잡힌 기도를 전한다. "나로 기난하게도 마음시고 부하게도 마음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사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가장 잘 아신다. 우리를 결손하게 하고, 강하게 하며, 살아 있게 하는 양식이다.

이제 우리의 '영혼 식단'을 업그레이드 할 때다.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영을 채우라. 30일만 시도해보자. 감사와 진리, 은혜로 영혼을 먹이라. 당신의 영혼이 몸만큼이나 건강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최승연 기자

"성경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한규삼 목사, 2025 다니엘기도회 넷째 날 강연



2025 다니엘기도회가 지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서울 오륜교회(담임 목사)에서 개최되어 오프라인,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넷째 날인 4일 저녁, 한규삼 목사(사진)(종현교회 담임)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디모데후서 3:16-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 목사는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은 신앙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아질 때 오는 감동은 인간의 지혜로 얻을 수 없는 기쁨이다. 성경은 단순한 지식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다. 말씀을 높이는 태도 자체가 곧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행위이며, 성경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귀히 여기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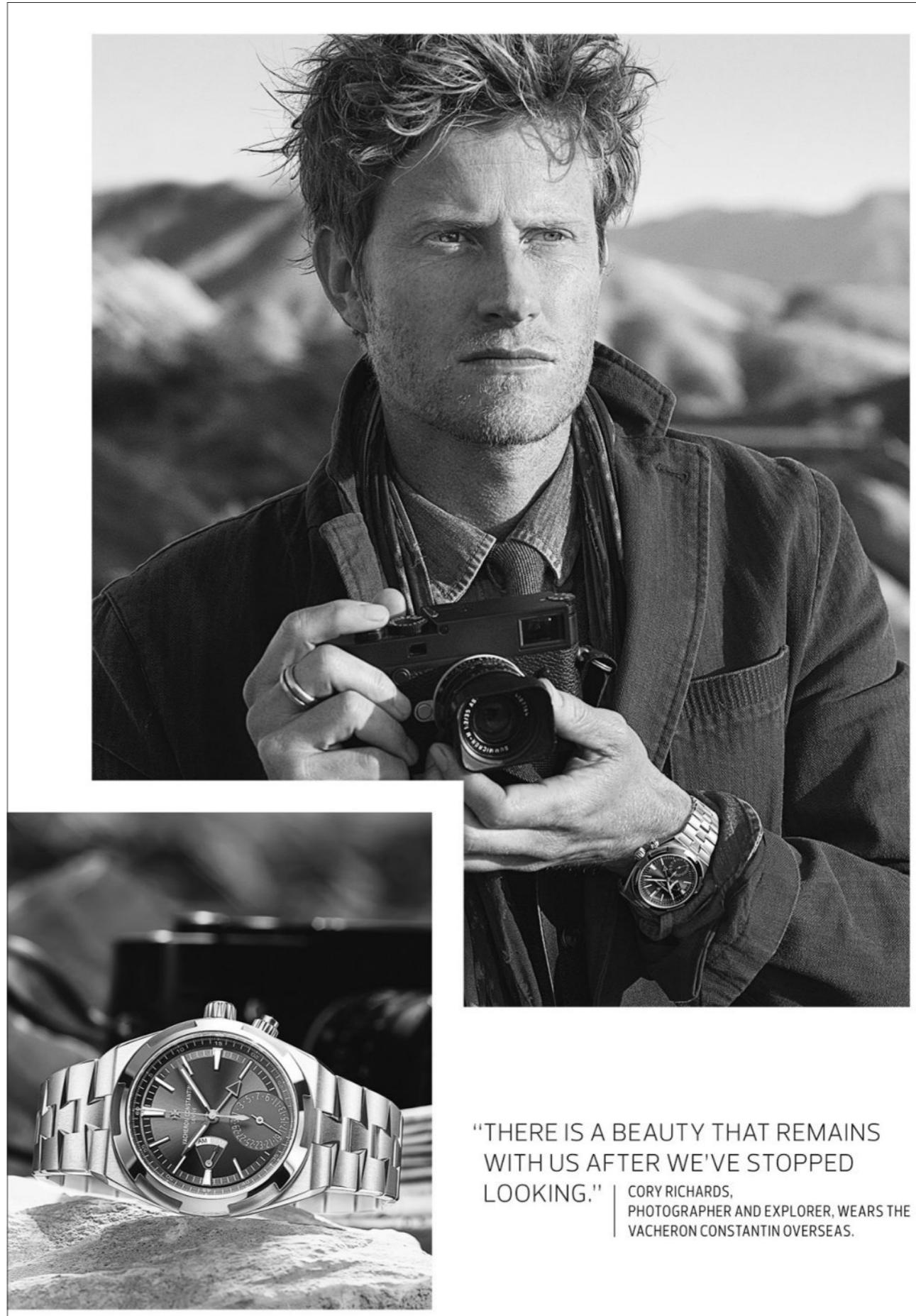
그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남긴 영적 유언이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디모데에

리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할수록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성경이 주는 책망은 인간의 꾸짖음과 다르다. 그것은 우리의 상처와 교만을 드러내고, 빛으로 치유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책망하신다. 누군가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책망을 통해 새 힘을 얻는다. 책망을 돌아킴으로 받을 때,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영혼은 다시 일어난다"고 했다.

끝으로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 의는 우리의 삶 안에서 열매로 드러난다. 선함과 의로움, 진실함이 우리의 인격 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사실 말씀에 의해 읽히는 존재다. 그 말씀은 우리를 비추고 새롭게 하며, 마침내 예수의 의로 빛나는 삶으로 이끈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박해: 선동이 아닌 현실에 응답해야 할 때”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는 라이언 브라운(사진)의 기고글인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박해: 선동이 아닌 현실에 응답하라’(Christian persecution in Nigeria: Responding to reality, not rhetoric)를 4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속될 경우 군사 개입까지 언급한 바 있다. 이 논의의 가장 큰 위험은, 이러한 말싸움이 우리가 도와야 할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잊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기록된 현실은 끔찍하다. 실제 사람들이 실제 신앙 때문에 폭력을 당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나 감정이 아니라, 진실에 기반한 응호다. ‘오픈도어스(Open Doors)’의 세계 박해 지수(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살해된 4,476명의 기독교인 중 3,100명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다. 또한 신앙 때문에 남치된 사람 3,775명 중 2,830명이 나이지리아인이었다.

오픈도어스는 ‘집단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법적으로 매우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단어이며, 증명되지 않은 주장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단어를 피한다고 해서 박해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이지리아 종

교인들은 아들을 묻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목자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재미가 된 교회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절규를 듣는다. 이 이야기들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도 신앙을 붙잡은 사람들의 실제 삶이다.

물론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 한 것은 ‘행동이다. 정부 관계자들이 백해를 부정하거나, 국제 사회가 무력 개입 만을 논의하는 것은 희망의 끈을 놓게 만들 뿐이다. 먼저 고통받는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이지리아가 다시 ‘특별우려국가(CPC)’로 재지정된 것은 옳은 방향의 한 걸음이다. 오픈도어스 아프리카 사역 대변인 조 뉴하우스(Jo Newhouse)는 “이 조치는 문제가 대규모이자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나이지리아의 가장 취약한 이들이 겪는 고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책임성과 보호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국제 압박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과 국제 사회는 외교 채널을 통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현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공정한 가해자 처벌, 폭력 억제,

공동체 회복이다.

시민들도 역할이 있다. 오픈도어스는 ‘Arise Africa 캠페인’을 통해 유엔에 전달할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는 폭력 단어로 불리든, 결과는 같다. 공동체는으로부터 신앙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 파괴된 공동체를 회복시키자는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작은 서명 하나가 모여, 박해받는 이들이 결코 잊히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

정책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공감과 기도다. 전 세계 교회는 인식 확산, 후원,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 나이지리아의 형제자매들과 연대할 수 있다. 성경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한다”고 말한다. 이 문제는 정치나 국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문제다.

어떤 이는 여전히 용어와 정의를 두고 논쟁할 것이다. 그러나 단어의 선택이나

정치적 수사에 몰두하다, 피 흘리고 부서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묻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집단학살’, ‘민족 청소’ ‘박해’ 어느 단어로 불리든, 결과는 같다. 공동체는 무너지고, 신앙은 시험당하며, 희망은 위태로워지고 있다.

분열된 세상 속에서,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과제다. 신앙의 자유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관한 일이다.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은 특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보호받을 권리와 평화를 누릴 권리를 요청할 뿐이다. 그들의 물음은 간단하다: “세상은 아직 우리를 위해 현명하게 응답할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대답은 반드시 “그렇다”여야 한다. 그리고 그 “그렇다”는 말은 협박이나 부정이 아니라, 그들의 존엄을 세우고 폭력의 근원을 해결하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연대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최승연 기자

무엇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오직 믿음’(Sola Fide)의 핵심 논쟁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R.C 스프로울(사진)의 기고글인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What was the cause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를 2일(현지시각) 게재했다.

R.C. 스프로울은 리고너어 미니스트리(Ligonier Ministries)의 설립자이자, 플로리다주 샌페드로 위치한 세인트 앤드류스 채플(Saint Andrew's Chapel)의 첫 번째 설교 및 교육 사역 목사, 리포메이션 성경대학(Reformation Bible College)의 초대 총장, 그리고 테이블톡(Tabletalk) 매거진의 편집 주간으로 활동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무슨 문제 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른다. 어떤 이들은 “종교개혁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회복된 최고의 시기, 곧 신앙의 황금기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문제는 종교개혁 자체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분열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종교개혁에 무슨 문제

가 있었는가?”라고 물을 때, 여기서 ‘문제(matter)’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너한테 무슨 일이야(What's the matter with you?)”라고 묻는다면, 보통은 뭔가 잘못되었거나 결함이 있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다르다. 필자가 묻는 것은 “종교개혁의 본질, 곧 그 실질적 요인은 무엇이었는가?”이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물질적 원인(material cause)”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렇게도 물을 수 있다. “16세기에 그토록 큰 결과를 초래한 이 거대한 분열의 핵심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역사학자들은 종교개혁의 원인을 논할 때 흔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을 따른다. 그는 어떤 사건의 형식적 원인(formal cause)과 물질적 원인(material cause)을 구별했다. 형식적 원인이라면, 지적·사상적 배경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최종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주제 아래 다루어진다. 반면 물질적 원인, 즉 실제 논쟁의 핵심은 ‘칭의(justification)’ 교리였다. 종교개혁의 입장은 이를 간결한 라틴어 표현 ‘Sola Fide(오직 믿음)’로 요약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솔라’(Five Solas) 가운데 첫 번째이다. ▲ Sola Fide (오직 믿음): 칭의는 믿음으로



로만 주어진다. ▲ Sola Gratia (오직 은혜):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진다. ▲ Sola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신자의 양심을 구속하는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다. ▲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다. 이 중 Sola Fide, 곧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중심 주제, 물질적 원인이었다.

개혁자들은 인간의 칭의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선언했다. 교리를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가톨릭이 이해한 ‘칭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이 논쟁은 결코 ‘바늘 끝 위에서 천사가 몇 명 살 수 있는가?’ 같은 사소한 신학 논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을 겨냥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칭의의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 수 있는가?”

오늘날 ‘칭의 교리’는 그 중요성이 심각하게 펼쳐되어 있다.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방식에 대한 교리적 차이가 교회를 나눌 정도로 중요했지만, 지금은 거의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오늘의 시대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의 시대다. 사람들은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며, 다양한 진리관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교리는 우리를 나누어선 안 된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사도적 가르침 속에서 올바른 교리에 대한 깊은 우려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는 이 점을 잊어버렸고, 우리는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매우 교회에 출석하고, 복음을 듣고, 교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그들은 외형상 신자이

지만,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옥의 심판 아래에 있다.

시편 130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묻는다: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주여, 누가 서리야까?” 답은 분명하다. 아무도 살 수 없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의롭지 못한 자는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복음을 그렇게 가볍게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 교회는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지옥의 실재를 믿었다. 그래서 당시의 중심 질문은 단 하나였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날 사람들은 구원을 ‘이 세상의 문제 해결’로 생각한다. 나쁜 습관, 중독, 사회적 실패, 심리적 결핍, 인간관계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성경적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핵심 질문은 이렇다: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가?” 놀라운 사실은, 로마 가톨릭 교회 역시 ‘믿음’,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를 믿었다는 것이다. 16세기 당시에도,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였다.

최승연 기자

기회를 캤,

가치를 캤,

가능성을 캤,

대한민국 희망을 캤 캤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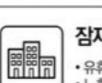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캤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자권 예금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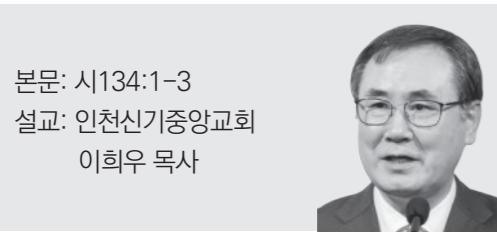


감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동 저율증 국유자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제기자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혁신핀드
• 캤코 선박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금융위원회 캤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순례자의 노래(15) ‘밤새 부른 해피송’



본문: 시134:1-3
설교: 인천신기중앙교회
이희우 목사

최대복 목사의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책이 있다. 200명에서 불과 몇 년만에 15,000명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예배였다고 한다.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만 채웠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 만다해 예배한 것,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나 신앙이 끊거워지고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무기력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하려는 거다. 그들은 조금만 늦어도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사람이 어슬렁거리며 오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태도가 아니기에 그런 사람에게는 예배당 문을 닫았다. 그래서 성도들은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한다. 예배에서 은혜받지 못하면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믿고 예배에 목숨을 건 거다. 그렇다. 그들에게 예배는 히기진 영혼에 양식을 공급하는 영혼의 식탁이고 생명의 통로, 변화와 충전의 시간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쏟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열정을 배워야 한다.

묻는다. 예배가 생명줄 맞나? 영혼의 식탁 맞나? 명심하라. 예배가 밥이다. 거를 수 없다. 예배가 맷줄, 생명의 통로이다. 용광로처럼 모든 근심을 녹이는 기도와 모난 곶을 날선 검처럼 도려내는 말씀과 천군 천사의 소리처럼 심령을 뛰놀게 하는 찬송, 그리고 고독을 물리치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예배, 생명을 유지하는 영적 종합 비타민 같은 예배,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인생이 바뀐다.

시편 134편에도 오직 예배가 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밖에도 예배를 위해 성전에 서 있다. 예배를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으로 여기고, 삶의 구심점이자 원동력으로 여기며 예배에 목숨을 걸고 먼 길을 달려온 순례자들, 이제 성전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축제의 마지막 밤, 성전을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워 밤에도 성전을 찾을 수밖에 없다.

‘밤이란 단어가 시선을 끈다. 원래 구약시대에는 정기적인 밤예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늦은 밤까지 철야하며 성전을 지키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1절), 이사야 30장에 보면 “너희가 기록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다”(29절)라고 했는데, 순례자들이 밤새 여호와를 송축한 거다.

심장이 쉬지 않고 피를 뺏어내듯 우리 영혼의 심장이 기도와 친양을 쉴 새 없이 뺏어내는 교회, 그래서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친양으로 끊겨있던 바로 그날 밤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 교회가 생명 에너지가 충만하고, 은혜로 행

복한 교회 되기를 기대하며 시편 134편을 “밤새도 록 부른 해피송”이라는 제목으로 불러 본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행복

시편 134편도 133편처럼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다. 그러나 짧아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예배의 부름과 설교, 그리고 축도를 갖춘, 심오함이 담긴 시다. 1-2절은 순례자들이 야간 근무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하여 외친 것이고, 3절은 성전을 떠나는 순례자를 향한 제사장의 축도였던 것 같다. 교독문 같은 교송으로 이해하면 된다.

시는 “보라”(Behold)라는 말로 시작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1절), 시인에게 송축은 기쁨이고 행복이다. 그래서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자”고 한다. 얼마나 행복한지 2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또 선포한다. 이 ‘송축하라’는 단아는 3절에 연극된 ‘복’과 같은 단어 ‘바리크’(복)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복’이라는 뜻으로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이다. 영어 번역본에 보면 “bless the LORD”, “bless you”로 번역했다. “하나님을 축복하라” “당신을 축복해요”라는 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6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릎을 꿇자”가 ‘바리크’ 상대방의 능력이나 지위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바리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라는 찬양이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바리크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능력, 위대함의 복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은 존귀함이고 승리이며, 충만함이자 탁월함이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에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3절),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 기억하니?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불렀던 행복의 노래,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1절),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며 경탄했다. 비 온 뒤 사람들을 부르는 무지개, 해 질 무렵 붉게 물들어 타는 듯한 저녁노을, 황혼과 함께 밀려와 밤하늘을 밝혀주는 친구 같은 달, 그리고 반짝반짝 웃으며 손짓하는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행복에 젖어 주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2절) 다윗은 기가 막하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미켈란젤로(Michelangelo)는 이 천지창조에 감동받고 4년 동안 늙거나 뒤로 버틴 채 시스틴 천정화 작업을 했다. 얼굴에 무수히 회반죽이 떨어져 시편에서의 기도는 ‘찬양한다’ ‘예배한다’는 의

지는 것을 감수하며 프레스코화(Fresco)를 그린 거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시 8:4),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부르는 찬양, 이제 곧 성전을 떠나도 나를 켜어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도 순례자들처럼 해피송을 부르며 살아야 한다.

◆손을 들고 송축하는 행복

시인은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2절)고 한다. 창세기에 보면 역사가 예배에 의해 갈라진다. 농사꾼인 가인은 땅의 소산을 재물로 예배드렸고, 목동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예배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유는 하나님이 삶을 보시기 때문, 예배 후 가인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화를 낸다. 교만한 거다. 그는 예배 실패의 책임을 동생에게 전가하고 종오심으로 동생을 죽인다. 삶과 예배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다. 반면에 아벨의 예배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예배로 평가된다. 결국 아벨은 예배 성공으로 순교자가 되지만 가인은 예배 실패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 방랑자가 된다.

그 결과 가인은 자손들까지 벼롭받는다. 후손

미와 일맥상통하는 것,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송축한다. 손을 든 것은 기쁨과 평화의 표시, 그런데 언제부턴가 찬양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마치 우리의 즐거움에 있는 것 같더니 결국 사람들은 기쁨과 평화를 상실하고 산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궁핍하다. 손을 들어야 한다. 손을 들면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아말렉 족속이 길목을 막는다. 전쟁이 벌어진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황이 펼쳐진다. 그래서 아론과 휴이 모세의 두 팔을 받쳐주며 모세로 하여금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게 도와주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친다(출 17:8-13). 손을 든 게 승리를 불러온 거다.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은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3-4절). 평생 주님을 송축하며 손을 들겠다고 한다. 구원을 믿는 감사,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소원성취를 확신하며 손을 들겠다고 한 거다.

감사하거나 사랑하면 손을 들고, 간절하면 두 손 들어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나는 아

장소는 ‘시온’, 성전이 있는 시온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발전소, 시온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 흘러나간다.

어디를 가든 순례자들이 복을 누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축도를 한 건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예배자를 축복하신다는 거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부름받은 이후 한평생 예배 중심으로 산 아브라함, 그는 예배의 조상이 된다. 어디를 가든 단을 쌓고 예배부터 드렸다. 한글 개역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창12:7),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창12:8), “아브라함이 장막에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니”(창13:8)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것, 주목할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표현이다.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드리는 거다. 기억하라. 독자 이사까지 제물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은 철저한 예배의 사람이었다(창22:9-10).

하나님은 예배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하늘을 우리로 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15:5),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창17:1-2), “네.. 네 아들 네 딸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창22:16-17)..

이용구 선교사의 『내려놓음』에 보면 몽골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 ‘밸러르’라는 자매가 몸에 땀이 범벅이 된 채 교회에 들어왔다. 이 자매는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였다. 이 자매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 찾는 것을 중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처로 달려왔던 거다. 몽골에서 소는 삶의 기반, 재산목록 1호이다. 소 한 마리가 보통 사람의 1년치 월급과 같은데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이 자매가 예배를 위해 결단을 내린 거다. 선교사는 이는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 밖에서 소 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로 찾아온 거다. 이거다. 소 찾는 기쁨보다 예배의 기쁨을 알고 예배를 선택했는데 소 찾는 기쁨과 예배의 기쁨, 모두를 얻었다. 예배의 문을 열면 하늘 문이 열린다!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아기로 안고 찬양했고(눅2:28, 농2:36, 37), 고넬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성령 충만 받았고, 루디아는 강변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바울을 통해 주님을 만나 유럽 복음화의 선구자가 되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시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거다. 영원토록 해피송을 부르는 행복한 순례자 되기를 축복한다.

SAMJIN 삼진제약

발열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 쿨다운 정



30정

상품 및 구입문의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포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열 후 동통(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오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넙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호교와 이단 연구

최철호 목사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장



I. 들어가는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논고를 '호교론(護教論)'이라 일컫는다. 호교론은 인류 역사에 있어 영원한 숙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변증함과 동시에, 대체점에 있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수호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난하고도 지속적인 문제이다. '이단'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자기가 신봉하는 길과 달리 별도의 길을 이를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것. 그리스도교의 신조에 반대함.' 한 사법부가 내린 법적 정의는 이렇다. '특정 교단의 권위에 의하여 배척된 교리 또는 집단.' 이와 같이 이단에 대한 사전적 정의 내지 법적 정의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의 여지를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이단에 대한 판단이 교파와 교단에 따라 상이한 준거에 의해 정의되거나 적용되기도 한다. 하여튼 이단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견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소고(小考)를 다음과 같이 전개코자 한다.

II. 성경의 언급

한글개역성경에 '이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하이레시스(αἵρεσις, sect)'로, 신약성경에 모두 5회 등장한다(행 24:5:14; 갈 5:20; 딤 3:10; 베후 2:1). 하이레시스는 '분파, 종파'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인 '이단'과는 의미상 다소 차이가 있다 하겠다. 왜냐하면 수식어가 붙지 않은 하이레시스는 단지 분파나 종파를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진리를 그릇되게 혹은 왜곡시켜 전하는 자들을 일컬는 용어로 '거짓 선지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슈도프로페스(ψευδό προφήτης, false prophet)'이다. 이 단어는 프슈데스(ψευδής, 거짓말하는, 거짓의)와 프로페스(προφήτης, 예언자)의 합성어이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모두 11회(마 7:15; 24:11, 24; 딤 13:22; 뉴 6:26; 행 13:6; 베후 2:1; 요일 4:1; 계 16:13; 19:20; 20:10) 등장한다. 구약성경(슥 13:2)에서 한번 '거짓 선지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비'(נָבִי, prophet, 선지자, 선견자)는 문맥의 의미상으로만 거짓 선지자임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마 7:17),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24)고 엄히 경고하셨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는 같은 범주에 속하며,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유형불 못에 던지어 고통 받게 될 것이다(계

2010).

III. 교부들의 호교 활동

호교론(護教論)은 교부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논제였다. 유스티누스(Justinus, 100-165년 경)는 『첫째 호교론』, 『둘째 호교론』을 저술하였고, 테오필루스(Theophilus, 120-185)는 『아우톨리쿠스에게』를 저술하였고,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 155-230)는 『호교론』, 『그리스도의 육신론』을 저술하였고, 오리게네스(Origenes, 185-253)는 『켈수스 반박』을 저술하였다. 모두 호교론서이다. 회심하기 전 약 10년 간 이단 마니교에 빠졌던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430)는 회심 후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가 쓴 『신국론』, 『그리스도교 교양』, 『참된 종교』, 『삼위일체론』, 『아카데미학파 반박』, 『질서론』, 『영훈 불멸』, 『마니교도 반박』 등은 모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호교론의 변증서들이다. 교부는 아니지만, 과학자이자 사상가인 파스칼(Blaise Pascal, 1623-1662)은 31세 때 강렬한 종교적 체험을 한 후 기독교에 대한 호교론을 집필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는데, 그의 유가족들이 친구들이 유고를 정리해서 간행한 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광세』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교회가 '파문' 혹은 '이단' 등의 말들을 만들었던 것은 쓸데없는 짓에 불과하였다. 사람들은 교회의 의도와는 반대로 이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은 현대의 이단 연구와 관련하여 일침을 가지고 있다.

IV. 이단 연구 활동과 책임

교부들은 성경에 해박한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교부들이 호교론을 논함에 있어 보여준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잘 못된 신학 교리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치열한 논거를 전개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그릇된 것임을 논증하였지만, 이단 감별사 노릇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중세 들어 공교회가 교권을 빙자하여 수많은 부녀자들을 악령에 사로잡힌 이단으로 정죄하여 마녀 사냥함으로써, 호교 및 이단 문제를 영뚱한 방향으로 오도(誤導)한 역사적 과오가 특출하다. 호교를 위한 이단 연구와 논증은 높은 전문성을 요한다. 성경과 신학 및 교리에 정통함은 물론, 깊은 영성도 겸비해야 한다. 지식과 지혜에 대한 깨달음은 이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의 조명에 의한 영적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 영적 통찰력을 영성(靈性)이라 할 때, 그에 수반하는 영적 체험 또한 중요하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영적인(πνευματικός, prophetic, spiritual, 신령한, 신비한) 것을 전제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4:24),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딤후 3:16). 따라서 신앙의 바탕은 본질적으로 영적이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산다는 하나님의 계시는 영적 통찰(깨달음) 없이는 이해도 믿음도 온전치 못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영에 대



한 깊은 통찰과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방신학, 그리고 서방신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온 한국교회의 토양은 영성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를테면, 서방신학자들은 라틴어 anima(soul, 혼)라는 용어를 무수히 사용하는 반면, spiritus(spirit, 영)라는 용어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들이 남긴 숱한 저술을 통해 흔히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과 신학 및 교리에 탁월한 전문성과 깊은 영성을 갖춘 자가 이단 연구 및 논증에 종사 토록 해야 한다. 각 교단 종회에서 의례적으로 '이단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그 직무에 관여하여 그 결과물을 종회에 헌의하고, 그리하여 어떤 특정인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행위를 통해 그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은 교리와 신학을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종파별(교단별) 교리의 차이점이 엄연히 존재하는바, 이를 숙지해야 한다. 신학 내지 교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뿐이다. 신학은 얼마든지 다양한 이론을 제시할 수 있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 수정되거나 폐기되거나 하나님의 이론으로 정립된다. 한편, 교리는 오랜 교회 역사와 전통 속에서 공적인 도론 과정을 거쳐 정립된 것으로 모든 교회가 존중한다. 신조는 교리를 더욱 축약하여 공교회의 이름으로 공포된다. 것인바,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삼는다. 하지만 교리가 성경을 우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한 교파(교단)의 교리나 신학을 잣대 삼아 타인을 무조건 판단 정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단성 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대상자의 출판된 책, 공개된 자료, 인터넷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것들 외에도, 반드시 그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빙약한 자료에 의거 단정

적으로 판단 정죄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차이를 자신의 것대로 제단하지 않아야 한다.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용어를 잘못 사용하였다가, 후에 오류를 인정 수정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윤리도덕에 속한 문제를 이단 감별의 것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 선지자적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반한다고 하여 이단으로 엮으려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다. 한국 교계의 병폐는, 한 번 이단으로 낙인찍히면 영원한 이단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이단이 아닌 밝혀졌을지도 그에 따른 회복 조치의 노력이 거의 없다. 이단 정죄와 관련된 주요한 긍정 문제는 여기서 눈외로 하자. 하지만 억울한 이단 혐의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회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여생을 보내야 한다면, 그 비극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마땅히 그런 정죄를 내린 사람이나 단체, 종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직고의 회계(會計)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롬 14:12). 정죄(定罪, judgement)는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주권이며, 결코 인간에게 위임된바 없다. 따라서 이단 연구는 논증을 통해 사람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V. 성령훼방죄

성경에 아주 엄중한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마 12:31). 성령 훼방죄를 일컬음이다. '훼방'으로 번역된 헬라어 'βλάσφημα'(βλασφημη)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의미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인 '성령 하나님'으로 지칭하였으나, 하나님의 역사(役事)하심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활동)하심에 대한 모독(훼방)은 매우 포괄적이다. 어릴 예정입니다.

떤 행위가 이에 해당되는지 가능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 훼방죄에 해당하는 죄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긴장케 한다.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이 어찌 가능하고 제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위임하신 다스림(통치)의 범위는 과연 어디 까지인가? 그분의 역사와 은사를 인간이 제한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한 그리스도인을 설불리자 신이 속한 교단 교리로 제단하고, 성경 해석의 다양한 견해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제단하여 판단, 정죄, 공표하는 것은 성령을 훼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이단감별사 노릇은 하나님께 속한 주권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31절은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다.

VI. 나가는 말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관점과 방식도 변화를 거듭하는바, 코로나 이후 AI가 초래하는 세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바른 신앙 수호와 이단 대처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이미 우리의 인식과 논증, 경험으로 기정사실화 된 이단들에 대하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기울일 일만 남았다. 작금 복음의 진리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최대 세력은 다음의 세 가지라고 본다. 첫째, 키워신학(동성애, 양성애, 수술 없는 성전환 주장, 잔디이즘, 동성부부 인정, 이를 뒷받침하는 사이비 신학)이다. 동성애의 사조는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국법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동성애는 옛 언약에서 가증한 행위의 중대범죄로 정죄한바(레 18:22; 20:13), 새 언약 하에서도 변함없이 가증한 행위로 경고한다(롬 1:26, 27). 동성애는 인권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둘째, 민중신학이다. 해방신학의 한국판인 민중신학은 그 역사가 이미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계는 하나님의 진보적 신학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민중신학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이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혁명가로, 부활을 민중이 주체가 되는 세상으로 펼쳐한다. 서남동은 『민중신학의 탐구』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철저히 농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중신학을 제대로 변증하고 비판한 신학자, 목회자, 이단연구가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 셋째, 교회에 침투한 종북굴종(從北屈종)의 전제사회주의 주사파사상이다. 마르크스-레닌의 후예들인 이들은 교회를 비롯한 한국사회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위협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데 한 죽을 담당하고 있다. 호교를 위한 이단 연구는 이제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 상기 글은 한국교회연합 총회 보고서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꽂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기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제주 4·3 사건과 여수 14 연대 반란 사건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그 해 4월 3일에 제주도에서 다가오는 국회 의원 선거를 보이콧하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4·3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한 외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 대통령께서는 1948년 4월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폭동 사건에 대하여 어떤 입장입니다?

외신 기자의 이 질문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다음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4·3 사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견해였다 생각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의 첫 국회의원 선거인 5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공산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희생당하였습니다.〉

4·3 사건이 이외로 크게 일어나자 간 태어난 이승만 정부는 이를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여수에 주둔 중인 14 연대에 명령하였습니다. 〈제주도로 출동하여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출동하는 당일에 14 연대 안에 암약 중이던 공산당 프락치들이 반란을 일으켜 식사 중인 장교들을 사살하고 2천여 명의 국군들을 선동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순 반란 사건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수 14 연대 반란 사건이여서 여수, 순천 시민들이 일어난 반란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이 사건을 그로 이해하여 〈국군들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울 수 없어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그릇된 인식입니다.

일터가 에덴이 되려면

권준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11월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기도하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형제와 나눌 말씀의 주제는 “왜 일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할 뿐 아니라 때론 부모와 배우자, 자식들의 삶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높이처럼 즐거우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삶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부담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의 1세 부모님은 많은 시간을 몸에 부담을 주는 일

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세대들은 심한 육체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전히 일이 힘들다고 하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안정한 시대에는 감원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형제와 제가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특권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갈 수 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내가 필요한 곳도 있고, 세수할 필요도 없을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기력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기간 이런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데가 없고,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을 이유가 없는 삶을 살아 보았습니다. 그 기간 몇 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이 몇 달을 지속하니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중에는 그 기간 많은 기능을 잃어버리고 전과 같은 삶으로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먼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최초의 범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최초의 일은 에덴에서 잘 지내는 것 이었습니다. 먹을 과일들을 따고, 동물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풍족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돌봐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땅은 저주받아 사람이 죽을 만지 힘들게 일을 해야 겨우 먹을 것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저주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일을 했음에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불안정한 사회 때문에 하던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여 주셨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이에게 첫바퀴를 도는 듯한 의미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퍼즐한 조각을 담당하는 사명을 부여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일이 힘든 것은 그 일이 의미가 있고, 보람도 있고, 해봤자 티도 안 나고, 수고에 비해 얻는 것이 덜없이 적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라 여기고, 그 일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라 여길 때 우리의 일은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에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에덴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社 說

간첩 활개 치는데 잠자는 ‘간첩죄’ 개정안

최근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일부 중국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보도되며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된 가운데 군사시설을 염탐하다 적발되는 사례까지 빈번해져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에 대한 막연한 혐오나 적대 감정은 안 될 일이나 법 위반자, 특히 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국내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인근에서 전투기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온 중국인 10대 고교생 두 명이 결국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각각 3차례, 2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해 수원·오산·평택·청주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 등 국제공항 3곳을 둘러 전투기와 관제 시설을 활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국인 10대는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기지 주변을 오가며 활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활영한 사진만 수천 장에 이르며, 항공기 이착륙 순간은 물론 군사시설 주변의 보안 구역까지 포함돼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활영하다 주민 신고로 적발된 이들을 군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왔다. 그러나 휴대전화 포렌식과 동선을 분석한 결과 단순 활영을 넘어서 정황이 드러나자 ‘일반적죄’로 변경해 구속한 것이다.

이들은 “평소 항공기 활영이 취미라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며 “작은 혐의를 원망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취미라도 군기지 인근에서 몰래 활영을 하는 건 불법이다. 그들이 10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남의 나라에 와 안보시설을 염탐한 행위를 눈감아 줄 나라는 없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 중 한 명이 자신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찰은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조사중에 있다. 만약 이들의 행위에 중국 공안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한 중 양국 외교 관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큰 문제다.

이들 10대 중국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일반적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 위반이다. 이 중 ‘일반적죄’는 형법 제99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범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지난 5월엔 주한 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대만 국적의 성인 남성 두 명이 전투기를 불법 활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대만 국적의 이 남성들에게 군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평택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 현장에서 미군 장비시설을 무단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사 당시 미군 측이 중국 및 대만 국적자에 대해 출입을 제한했음에도 한국인들과 섞여 행사장에 들어온 후 불법 활영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미군이 출입을 세 차례나 제지했는데도 보안망을 뚫고 무단 침입한 만큼 이들에게도 ‘작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들어와 군사시설 등 핵심 국가시설을 무단으로 활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6월 이후 1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을 중국인이 드론으로 활영한 이후 최근까지 발생한 11건의 사진 활영이 군기지 공항·항만·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에 집중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군사시설을 몰래 활영한 중국인의 경우 관광객 또는 유학생 신분이었고 그중 미성년자도 있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한결같이 취미자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둘러댔으나 적발 당시 고성능 카메라와 무전기 등을 사용한 수법과 활영 내용이 군사시설 탐지로 불만한 증거들이 나온 점 등을 미뤄 볼 때 계획적인 안보 정탐 행위가 의심된다.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특히 중국인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 사례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이런 위법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데 있다.

지난해 말부터 각종 안보 불안 이슈가 터지면서 국회에서 ‘간첩죄’ 개정안이 발의됐다. 간첩행위를 ‘적국이나 외국의 지령사주·의사연락 등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처벌 대상을 북한뿐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게 골자다. 하지만 여론이 가라앉자 이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된 채 1년 가까이 잠자고 있다.

간첩행위와 관련해 미국·중국 등 다른 나라는 자국의 타국 전체를 ‘범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은 국가 간 친소관계와 상관없이 자국의 핵심 기술, 안보 관련 기밀 유출에 관여하면 이를 ‘간첩 행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데 우리나라에는 복한만을 한정한 탓에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

간첩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신설된 이후 7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 틈을 비집고 사실상의 간첩 행위자들이 활개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한국은 ‘중국 간첩들의 놀이터라는 비아냥끼지 듣는 마당에 국회가 왜 법을 개정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말끝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든가, 당장 법 개정에 착수하든가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2026 수능 D-6…수험생 건강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막바지 학습도 중요하지만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험 당일 최상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4시간 자면 학습, 5시간 자면 불합격이라는 사당오락(四當五落)’이라는 말이 있지만 하루 6~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이 수험생에게는 더욱 유익하다.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 날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돼 학습 효율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수면 중 분비되는 호르몬은 기억 정리와 회복을 돋기 때문에 시험 직전까지도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하루 20~30분 가량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약간 땀이 날 정도의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 유도에 효과적이다. 단,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무리

한 운동은 피한다. 가볍게 몸을 푸는 정도로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식사 역시 일정하게 챙긴다. 끼니를 거르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 긴장 상태에 놓이고, 반대로 과식하면 혈액이 위장에 몰려 출음과 무기력감이 생길 수 있다. 시험 전에는 소화가 잘되는 음식 위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균형 잡힌 식단이 도움이 된다. 특히 아침식사는 거르지 말고, 평소 먹던 음식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시험 전날에는 무리하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컨디션 조절에 집중한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시험장까지의 이동 시간과 경로를 미리 점검해 두면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등 준비물을 미리 챙겨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일 아침에는 기상 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긴장을 완화한다. 아침 식사는 과식하지 말고, 평소 먹던 메뉴 중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섭취한다. 시

험장에서는 과도한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긴장을 완화하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수험생에게 중요한 것은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생체리듬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수능 일주일 전은 몸과 마음을 시험 당일에 맞추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을 앞두고 수면 시간을 줄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다은 기자

국제결혼 5년만 최대, 미국인 남편·베트남 아내 多…다문화 출생 12년만 반등

국가데이터처,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던 다문화 혼인이 지난 해 2만1000건을 넘어서며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000명 넘게 늘어나며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국제결혼 수요가 회복된 동시에, 정부의 가족지원 정책 강화 영향이 다문화 가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50건으로 전년(2만431건)보다 1019건(5.0%)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2만4721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1만 6200건)과 2021년(1만3900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후 코로나 영향이 줄며 2022년 다시 반등했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이후 2년 연속 2만건대를 이어가는 중이기도 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억눌렸던 국제결혼 수요가 회복되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체류가 안정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혼인 증가율(14.8%) 다문화 혼인 증가율(5.0%)을 크게 상회하면서, 다문화 혼인 비중은 전년(10.6%)보다 1.0%포인트(p) 감소한 9.6%를 기록했다.

다문화 출생아 수도 지난해 1만3416명으로 전년(1만2150명)보다 1266명(10.4%)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13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11년간 감소세를 이어왔는데, 지난해 깜짝 ‘플러스’로 돌아서며 12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증가 폭(1266명) 역시 지난 2011년 1702명을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증가율로 보면 10.4%, 2009년(4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문화 출생아 증가율이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증가율(3.6%)을 압도하면서,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3%p 증가한 5.6%를 기록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정착 안정화와 정부의 가족지원 정책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유형별 혼인을 보면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이 71.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외국인 남편 18.2%, 귀화자 10.6% 순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의 경우 45세 이상의 비중이 32.7%로 가장 높고, 30대 초반(19.6%), 30대 후반(17.0%) 순으로 높았다. 아내의 경우 20대 초반의 비중이 23.4%로 가장 높고 30대 초반(23.0%), 30대 후반(15.5%) 순이었다.

다문화 혼인 중 초혼 남편의 평균 연령은 37.1세로 전년 대비 0.1세 하락했고, 아내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7세로 전년 대비 0.2세 상승했다. 남녀 간의 평균 초혼 연령 차이는 7.4세로 1년 전과 비교해 0.3세 하락했다.

부부 연령차별 비중은 남편 연상이 76.2%로 가장 높고, 아내 연상이 17.9%, 동갑이 5.9%를 차지했다.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는 37.3%로 전년보다 0.7%p 감소했다.

출신 국적별 혼인을 보면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 남편의 출신 국적은 미국이 7.0%로 가장 많고, 중국(6.0%), 베트남(3.6%)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또는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이 26.8%로 가장 많고, 중국(15.9%), 태국(10.0%)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다문화 이혼은 7992건으로 전년(8158건)보다 166건(-2.0%) 감소했다. 전체 이혼에서 다문화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전년과 유사했다.

이는 2013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11년간 감소세를 이어왔는데, 지난해 깜짝 ‘플러스’로 돌아서며 12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서다은 기자

항산화 효과, 일반 마늘의 5배!

“5년간 보일러 화재 810건”…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해야

행안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 당부

텐트서 난방용품 사용 시 수시로 환기해야

행정안전부는 추위지는 날씨로 보일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 철저한 점검과 정비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조한다. 특히 6일에는 난방용품 사용 시 수시로 환기해야 한다.

보일러 사고는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뿐만 아니라 유독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거나 실내로 잘못 유입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누출이나 중독을 인지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2020~2024)간 가정용 보일러 화재는 총 810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5명이 연기유독가스 흡입, 화상 등 피해를 입었다.

특히 11월은 날씨가 추워지며 보일러 가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보일러 화재도 91건으로 월 평균(67.5건)보다 많다. 원인별로는 전기 접촉 불

화재(36.0%)와 보일러 고장(30.0%) 등이다.

보일러 사고 중 연기불꽃이 보이거나 끄거운 바람이 나오는 경우, 보일러 외부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보일러 표시등이 깜빡거리거나 켜지지 않는 경우,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진동, 냄새가 나는 경우 등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보일러 화재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 중 연기불꽃이 보이거나 끄거운 바람이 나오는 경우, 보일러 외부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보일러 표시등이 깜빡거리거나 켜지지 않는 경우,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진동, 냄새가 나는 경우 등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최근 5년(2020~2024)간 가정용 보일러 화재는 총 810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5명이 연기유독가스 흡입, 화상 등 피해를 입었다.

특히 11월은 날씨가 추워지며 보일러 가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보일러 화재도 91건으로 월 평균(67.5건)보다 많다. 원인별로는 전기 접촉 불

화재(36.0%)와 보일러 고장(30.0%) 등이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독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의 막힘이나 이탈, 배관의 부식·찌그러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보일러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주변의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정리하고 유

심리적 상담 치유 (예언의 말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고질병을 혼자 고심하지 말고 (한문으로)
“이름과 나이”만 알려 주시면 고목 나무에 꽃이 피어 인생길을 밝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하게 됩니다.
성격, 사명, 출세, 성공, 실패, 건강, 병약, 단명, 장수, 가정, 자녀, 부모, 부부의 금실, 이혼, 위급한 사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밝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는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고백 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고 했다.
고전4:10

송백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 6길 4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 토지: 2,756m² (833.69평)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a(40평)
 -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낯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경기 예술 신학원 학생모집

문화 전쟁의 시대 마귀 문화와 하나님 문화의 대결의 시대에 기독교 문화를 대중화 하고 또한 예수 신앙으로 무장된 예술인을 배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경기예술신학에 모집을 목적에 둔다.



학력 및 경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광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개신대학원대학교 석사(사회복지전공)
개신대학원대학교 (ph.D) 철학박사

철학박사

전 극동방송 드라마 성우 / 대한민국 연극제 최인훈작
한스와 그레텔(주연) / 쏘르드르작, 이강렬 연출
출구없는 방 출연(주연) / 세익스피어 작, 오설표 출연등

학 과	연극선교학과
지 원 자 격	고졸이상학력
종 교	기독교세례자
모 집 인 원	약간영
원 서 지 원	25년 1월부터
개강및수업	수시모집
학 제	4년

토요일만 집중 수업 출연 후 목회자가 되기를 하면 개혁신학교 신학연구원에 입학함

지구촌복음방송

대표 장대수 목사 | 문의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6-2 현대프라자 4층 시흥 사랑의교회 내

일어나 빛을 빛하라 이는 네 빛이 이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매인 화면의 국가나 국가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아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감사 약력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한생교회 담임목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사) 현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현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1995. 9 개척
·2000. 4 1차 성전건축
·2008. 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끝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 010-8913-7777
·한생교회 : 032-512-3375

한생 교회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낙도·오지교회
·3 無부흥회: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른신께 페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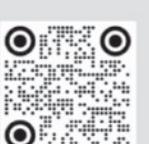
†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 36,000자 토플,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AI VOCA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한동대학교의 교육 전략

신간 '인공지능(AI) 시대, 전인지능(HI)으로 담하다'



인공지능이 세상의 지식을 가르칠 때, 대학은 인간다움을 가르쳐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 전인지능(HI)으로 담하다>는 한동대학교 최도성 총장이 지난 수년간 이끌어온 교육 혁신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저자는 'AI가 지식을 전달하는 시대, 대학은 인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술 중심 사회 속에서 접두 교육이란 인간의 전인적 성장·신·인성, 성적 통합을 회복하는 일임을 역설한다.

최도성 총장은 책의 서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을 AI가 대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기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을까?" 그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HI(Holistic Intelligence, 전인지능) 교육의 비전을 세웠다.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 고유의 능력—사랑, 도덕, 공감, 관계—을 중심으로 두고 한동대학교는 이를 신·인·성·자·성의 세 축으로 구체화했다. 이 모델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본질을 침식하는 흐름 속에서, 교육이 다시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대안적 선언으로 주목받고 있다.

AI가 지식을 대체하는 시대에, 한동대학교는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삼는다. 지식을 암기하고 시험으로 평가하는 기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한동의 HI 교육은 생각하는 법, 협력하는 법, 그리고 섭기는 법을 가르친다.

HI 교육의 중심에는 세 가지 지능이 있다 ▲도덕지능(Moral

Intelligence):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힘 ▲디지털지능(Digital Intelligence): 기술을 활용해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균형 잡힌 디지털 역량 ▲공헌지능(Contribution Intelligence): 배우는 지식을 세상 속 문제 해결과 공동체 봉사로 연결하는 실천력.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전인지능 교육은 단순한 '인재 양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로 정의된다.

책은 한동대학교의 대표적 프로그램을 통해 HI 교육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GEM 프로젝트(Global Engagement and Mobilization)'는 교수와 학생이 한 팀이 되어 개발도상국의 낙후 지역에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활용해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이루는 현장형 교육이다.

최승연 기자

신간

교회는 부족으로 모인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드리지만, 함께 있다는 감각은 사라지고 있다." <교회는 부족으로 모인다>는 오늘날 소비주의 시대 속에서 관계를 잊어버린 교회를 향한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저자는 신앙을 나에게 유익한가로 소비하는 시대에, 교회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 문화에 악수한 독자들에게 '함께'라는 감각을 되살리는 영적 전환의 길을 제시한다.

오늘날의 교회는 여전히 많은 사람을 모으고, 다양한 사역을 펼치지만 공동체의 온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관계는 기능으로 대체되고, 신앙은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 저자는 <교회가 놓친 것은 사역의 다양성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

보는 눈>이라고 진단한다.

이 책은 '신부족주의(neo-tribalism)'와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자발적 공동체 현상을 신학적으로 조명하며,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의 '부족(trIBE)'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를 모색한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존재를 환대하는 일이다. 교회는 바로 그런 자리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곳이다" 이 문장은, 교회의 본질이 '모이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관계에 있음을 강하게 드러낸다.

저자는 "오늘날 교회는 '우리는 자라고 있는가?'보다 '함께 자라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혼자 잘 믿는 신앙'은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작사이며, 참된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신앙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지만, 공동체는

감정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감정의 교류가 있을 때, 교회는 조직이 아닌 살아 있는 몸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현대 교회의 위기를 단순히 제도적 문제로 보지 않는다. 저자는 소비주의가 우리에게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를 요구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활동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무엇을 하는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가에 있다.

저자는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이 존재하게 하는 신앙의 방식이다. 하나님은 쉬 가운데서 우리를 만지신다"라고 말한다.

'더 많은 사역보다 '더 깊은 존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다시금 쉼과 관계, 존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함을 이 책은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최승연 기자

가이드포스트 한국판, 창간 60주년 맞아 특집 증보판 발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리로다"…60년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1965년 창간 이후 반세기 넘게 신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월간 「가이드포스트」가 한국판 창간 60주년을 맞아 11월호를 특집 증보판으로 발간했다. 이번 기념호는 평소보다 48면을 더한 확장판으로 제작됐으며, 오는 11월 7일 오후 6시 서울 영락교회 드림홀에서 창간 60주년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이번 11월호의 주제는 시편 20편 7절 말씀인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리로다"로, 하나님께서 지난 60년 동안 인도하신 여정을 감사로 고백하고 앞으로의 사명

을 되새기는 뜻을 담고 있다.

기념호의 첫 장은 창간호 제1권 제1호에 실렸던 노먼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e) 목사의 칼럼 'How to make the most of you(나답게 살자)'로 시작된다. "하나님이 주신 나 자신을 어떻게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묻는 이 글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가이드포스트」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적인 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증보판에는 올해 창간 80주년을 맞은 미국 가이드포스트의 존 템플(John Temple) 회장과의 인터뷰가 실렸다. 그는 인터뷰에서 "가이드포스트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희망과 믿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명을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판의 60년 역사는 전 세계 독자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 코너에서는 한국교회 역사 속 이웃 사랑과 섬김의 본을 남긴 영락교회 초대 담임 한경직 목사를 기리는 인터뷰가 실렸다. 또한 과거 가이드포스트의 커버스토리로 신앙을

나는 부산지법 천종호 판사,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 아동문화가 송미경 작가 등의 특별기고도 함께 게재돼 신앙인의 삶과 사역에 깊은 울림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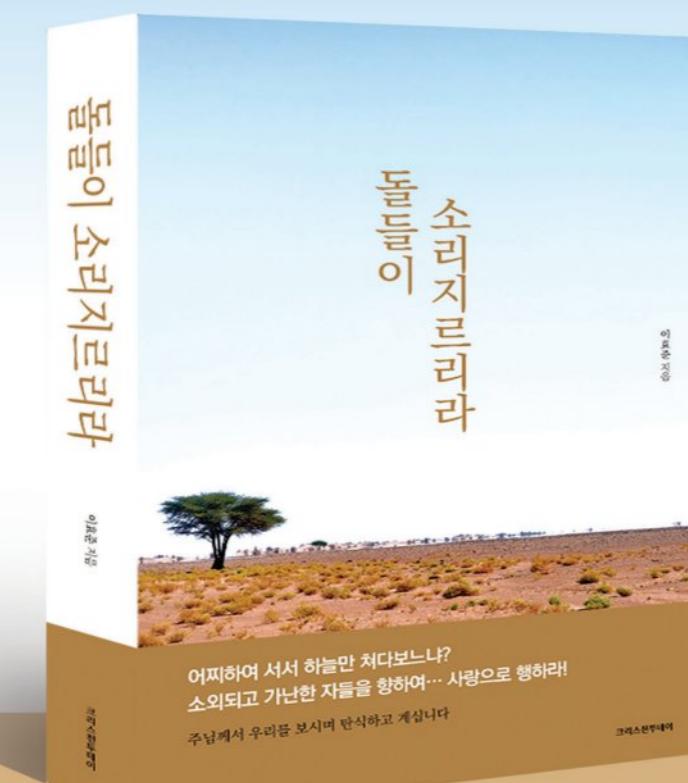
독자 참여 코너 '60년의 동행, 당신의 편지' 공모전 수상작도 이번 호에 실렸다. 평범한 이들의 감사와 믿음의 사연을 통해, 가이드포스트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이 세대를 넘어 다시 이어지고 있다.

가이드포스트는 "부흥의 시간도 있었지만, 역경과 시련 또한 적지 않았다"며 "평범한 사람들의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해 왔고, 그 길을 따라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회고했다.

가이드포스트는 "인쇄 매체가 소외하고 디지털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든 오늘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사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승연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정교(구체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울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11월, 작가들의 말말말

제자도의 핵심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바울에 따르면,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전 13:13을 보라). 그는 이 셋 중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마침내 믿었던 것을 눈으로 볼 것이다. 소망했던 대상을 결국 만나게 될 것이다. 영원 속에서 이런 덕목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마치 임부복 같아서, 영원이 우리 안에서 태어난(혹은 우리가 영원 안으로 태어난) 이후에는 필요 없어진다. 지속되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은 기다림의 덕목이라 할 수 있으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덕목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교회력의 실천은, 삶의 고통과 역사의 비극 한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기다림을 훈련하는 일이다.

티시 해리슨 워런 '데림절, 소망하며 기다리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좋은 만남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합니다. 이런 만남은 서로를 인격화·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하며, 더 나은 의사소통과 이해, 그리고 존중을 배우게 합니다. 또한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만남은 더 많이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가는 데 유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좋은 만남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상대방에게 무감각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정도와 표현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여져야 할 죄의 빛을 대신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준 자들에게 빛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빛은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깊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경제적인 빛은 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대희 '커플 100일 큐티 : 그 남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자나갔으니 보라. 이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새로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 나는 것이 바로 그렇다. 세상에서는 개랑이나 개학에 초점을 두어 거듭난다는 표현을 쓴다.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도 있고, "버려졌던 공간이 예술가의 손길을 사용함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것은 그렇지 않다. 말 그대로 완벽하게 태어나는 것이다. 태어남이 전혀 태어난다는 비유이기 때문이다. 한 번 태어난 사람과 두 번 태어난 사람도 그렇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강학증 '성막을 말하다'

날새를 끌어다니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부흥의 중요성 (2)

조나단 에드워즈와 부흥의 중요성을 다루면서 우리는 올해의 주제인 “미국에서의 청교도주의 실험”을 계속 다루어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택한 목적은 영국 국교회의 명예에서 벗어난 지 이백 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우리의 미국 친구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그들의 독립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수적인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칠 세기 새 대륙에 일어났던 일로부터 무엇인가 배우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의 연구 모임에서 생각해 왔던 것은 다시 한번 청교도의 정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청교도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청교도주의 실험은 청교도주의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보여주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교도주의가 본질적으로 목회 신학에 대한 하나의 관심이라고 믿게 하려고 했

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교도주의의 정수는 이미 교리 문제에서 일어났던 개혁을 기독교 교회의 본질과 생활과 정책 속에 반영시켜 실행하려는 바람입니다. 금년도 웨스터민스터 청교도 연구회의 주제가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입증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로 펑박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서 새로운 나라에 살려고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국 국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진정 믿는 바대로 행할 자유를 얻게 되자 즉시 국교도이기를 단념했습니다. 그들은 감독 제도를 버리고 회중교회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 점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훈입니다. 이 일은 후에 영국에 있는 거의 모든 청교도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믿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영국에서 도 찰스 일세를 대항하여 겪고 난 후 삼

십 년 만에 공화정 사절 그리고 천칠백육십이 년 대추방 때에 비로소 실시된 것을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은 청교도주의의 침된 성격과 본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특별히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그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천칠백십 년에 태어나 천칠백오십팔 년에 죽었습니다. 이상스럽게도 그는 천연두 예방 접종을 맞은 결과로 죽었습니다.

그는 매우 탐구적이고 활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학뿐만 아니라 과학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일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천칠백이십칠 년 그는 매사추세츠 주 노스햄턴에서 외조부 솔로몬 스토다드의 부목회자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일 년쯤 후 외조부가 돌아가시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혼자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천칠백오십 년 교회에서 죽었을 때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것은 정말 기이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 것은 교역자들과 선교자들에게 한 마디 격려의 말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빼어난 천재이며 능력 있는 설교자로서 대부흥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칠백오십 년 투표 결과 이백삼십 대 이십삼으로 교회에서 죽거나 말았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노스햄턴 교회에서 주방당한 그는 당시 변경 지역으로 인디언들이 사는 곳인 스톡브리지로 갔습니다. 그가 그리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가장 위대한 결작들에 속하는 몇 권의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존 변연이 십 년 동안 베드퍼드의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명성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처럼 고독하게 됨으로써 명성을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다가 그는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초빙되었는데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거기서 얼마 후에 그는 제가 설명 드린 것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생애에서 뛰어난 사실은 그의 노스햄턴 사역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그것은 천칠백삼십사

년 말부터 천칠백삼십오 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천칠백사십 년 조지 유플드 일행의 방문과 대각성에 참여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생애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연구회에서 언급된 사람들

과 이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는 심풀 세기 사람인지 심칠 세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청교도 주의의 새로운 요소와 새로운 요인이 나타났다고 말해도 잘못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청교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학자적 기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소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쓴 저작들의 문제와 제목과 소제목에서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비

교적 그런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그 결과

그의 방법은 보다 직설적이고 보다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생각해 온 전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계약 신학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충분한

언약 개념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천칠백오십 년 그가 교

회에서 축출당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정인의 자녀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려 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 청교도의 정신과 삶과 부가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게 그처럼 뛰어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주의가 그의 삶과 사역에서 만발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는 교회가 아주 생명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계속된 후 나타난 사람입니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와 매우 유사한 시기에 살고 있으므로 이 점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목회자였던 쿠퍼 목사가 에드워즈의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란 책의 서문에서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혁교회들이 그동안 얼마나 죽어 있었고 얼마나 메마른 상태에 있었습니까? 황금의 소나기가 멈춰섰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은 탁월한 성공을 전혀 거두지 못했습니다.”

회심도 드물었고 정말 그러한 일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그전처럼 깨어 있거나 뜨겁거나 규례들을 통해서 새로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정교도 도서관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16:8 NIV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With him at my right hand, I shall not be shaken.

- shall : 예측(prediction)의 조동사, 1인칭에만 쓰임
- shake : (신념 또는 생각을) 흔들리게 하다

- keep my eyes on : ~을 (주의) 깊게 계속해서) 바라보다
- with :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 at my right hand : 나의 오른편에

시편 16편 8절
나는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분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John 3:12 NIV

I have spoken to you of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then will you believe if I speak of heavenly things?

- heavenly things : 하늘의 일들

- have spoken(현재완료) : (지금 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 speak of : ~에 대해 이야기하다
- earthly things : 세상의 일들 (세속적인 일들)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의 일들에 대해 얘기했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하늘의 일들에 대해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A B C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백판기 목사의 영어로 읽는 로마서(173)

로마서 14장 7절

7. For none of us lives to himself alone and none of us dies to himself alone.

·For none of us lives to himself alone :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and none of us dies to himself alone. :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중요한 단어, 숙어
 none(=no+명사) 아무도~않다아무것도~않다: alone 혼자서홀로.

이 말씀은 진리이되, 체득하기는 가장 어려운 진리이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는 표현은 남이야 뭐라 하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죽는다는 뜻이다. 마치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말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 중에는”. 즉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말씀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인 동시에 남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가운데 남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 남이야 뭐라든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부류가 운동 선수들이다. 대중의 시선을 끄는 스타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 한다. 영화배우들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에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단 영화 배우나 운동 선수들 같은 스타들만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도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누가 상관 하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다. 하다못해 자식들이 보고 있고 손자들이 보고 있으며 부모들이 보고 있고 동생들이 보고 있으며 친척들이 보고 있고 이웃 사람들이 보고 있으며, 아무튼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있음을 알

야 한다.

고린도전서 6:19-20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received from God? You are not your own; 20 you were bought at a price. Therefore honor God with your body.

고린도후서 5:14-15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4 For Christ's love compels us, because we are convinced that one died for all, and therefore all died. 15 And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해석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14장 8절

8. If we live, we live to the Lord:



and if we die, we die to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If we live : 우리가 살아도

; we live to the Lord: : 주를 위하여 살고

·and if we die : 죽어도

; we die to the Lord. : 주를 위하여 죽나니

·So : 그러므로

; whether we live or die : 사나 죽으나

; we belong to the Lord. :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중요한 단어, 숙어

whether A or B : A든지 B든지.
 whether ~인지 어떤지, ~이든지(아니든지). belong to ~에 속하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우리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면 다른 사람들아이 우리를 주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지언정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시하신다. 그런즉,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 이 설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요한계시록 14:9-13

9 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 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리’ 하시더라 9 A third angel followed them and said in a loud voice: “If anyone worships the beast and his image and receives his mark on the forehead or on the hand, 10 he, too, will drink of the wine of God’s fury, which has been poured full strength into the cup of his wrath. He will be tormented with burning sulfur in the presence of the holy angels and of the Lamb. 11 And the smoke of their torment rises for ever and ever. There is no rest day or night for those who worship the beast and his image, or for anyone who receives the mark of his name.” 12 This calls for patient endurance on the part of the saints who obey God’s commandments and remain faithful to Jesus. 13 Then I heard a voice from heaven say, “Write: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Yes,” says the Spirit, “they will rest from their labor, for their deeds will follow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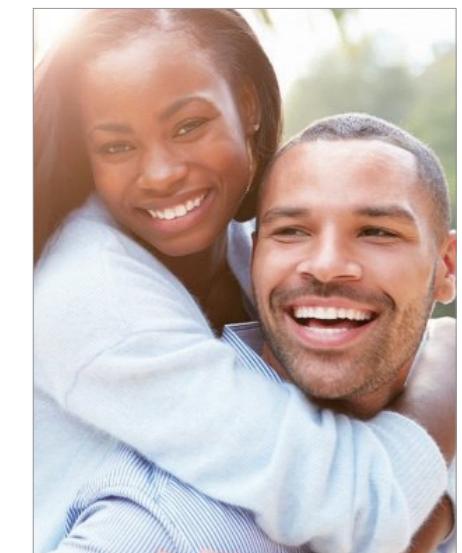
▶해석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백판기 목사(예수날사랑하심교회)

풍성한 축사

감정계좌



모든 사람은 감정탱크, 사랑은행, 감정계좌등 다양하게 불리는 것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스테판 코비의 용어인 감정계좌를 좋아 한다. 예금계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감정계좌에 입금을 하고 출금을 한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시간을 함께하는 것,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서로를 돋는 것, 주님과 가까이 걷는 것, 서로의 영적 파트너가 되는 것, 재미있고 충실했던 파트너가 되는 것 -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입금과 출금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이다.

부부가 함께 하지 않거나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별거나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쪽 또는 양쪽의 감정계좌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거나 완전히 비어 버렸기 때문이다. 부부는 감정적으로 배우자를 파산시킬 때 이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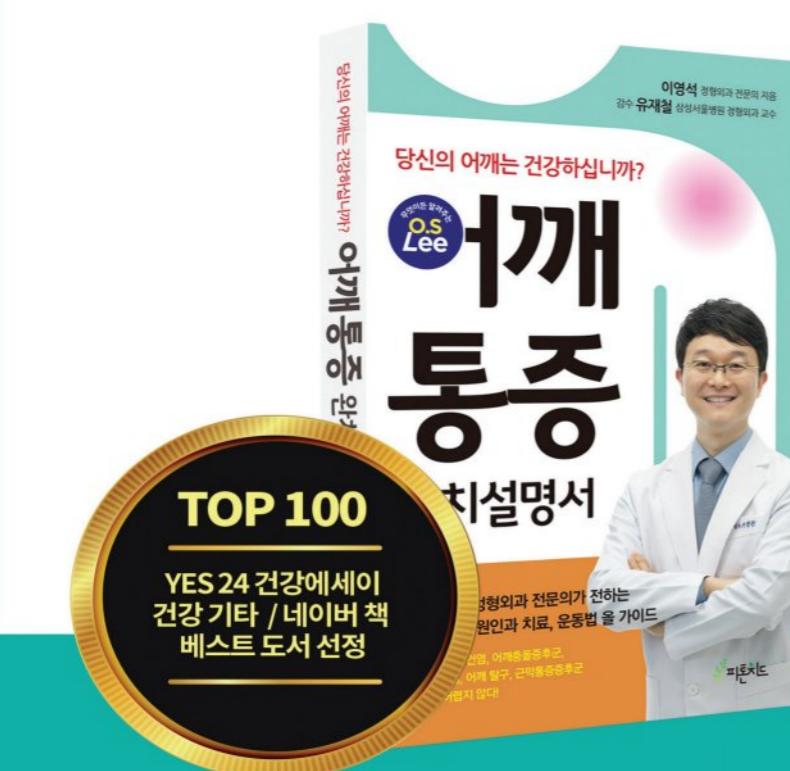
대금을 항상 늦게 결재해 주는 사업가가 어리석은 것과 같이 필요할 때에 아내의 감정계좌에 입금을 하지 않는 남편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들 모두는 출금을 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출금보다 더 빨리 입금을 하느냐는 것이다.

당신이나 당신 아내가 하는 모든일은 입금 아니면 출금이다. 우리 아내의 계좌에 사랑과 신뢰의 저수지를 만들자.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감정계좌에 있어 입출금의 균형상태는 어떤가? 당신은 아내의 감정계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패드릭 M.모레이 「아버지의 일곱가지 계절」 중에서 / 출처: 헛별같은이야기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은혜의샘물 역사는 정신에 지배된다 (1)

[누가복음 12장 16-21절]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Midas)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다스는 브루기아의 왕으로서 황금을 어찌나 좋아했던지 손으로 만지는 것은 모두 황금이 되게 해 달라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소원이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미다스는 훌륭났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는 것은 좋은데,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자 딸까지도 황금으로 변했고, 사과를 먹으려고 손을 대자 사과마저도 황금으로 변하는 바람에 졸졸 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대의 가치를 두고 탐하는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십이 장 십육 절에서 이십 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예수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풍년이 들었습니다. 거두어들인 곡식은 곡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 더 넣어 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군. 그러면 충분히 쌓아둘 수 있겠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물건을 몇 해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쌓아 두었다. 이제는 편안히 쉬면서 면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라. 그리고 나면 네가 모든 재산이 다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재물에

은혜의샘물



다 최대의 가치를 두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안주하려는 사람은 결코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교훈입니다.

기원전 삼백삼십육 년에 그리스 본도 도시국가의 왕들은 페르시아 원정을 앞두고 고린도에 모여 군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무 살에 불과한 젊은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가 원정군 종사령관으로 뽑혔습니다. 그러자 내로라하는 정치가, 장군, 철학자들이 고린도에 몰려와 축하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사령관이 기다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당시 시노페 출신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오게네스가 축하 인사하러 와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몸소 이 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나무통 속에서 초라하게 살았는데, 일광욕을 즐기던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를 보자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뭐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디오게네스가 대답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사령관께서 햇살을 가리고 계시니, 조금만 비켜 서 주십시오.’

알렉산더는 그리스 원정군 종사령관을 본체로 하지 않는 철학자의 배포에 질려 다음 질문을 내놓지도 못하고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동행했던 장군들이 디오

게네스의 통명스러움을 비웃었지만, 알렉산더는 오히려 “내가 만일 오늘의 알

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거칠게 먹고 험하게 입고 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고기를 사 먹을 수 없었던 그는 값싼 야채를 구해 깨끗이 씻어 먹고는 했습니다. 그가 시냇가에서 푸성귀를 씻고 있는 것을 본 한 유복한 친구가 지나가다가 안타깝다는 듯이 충고를 했습니다.

“고개 수그리는 법을 조금만 알아도 호의로 허락할 수 있을 텐데, 자네 왜 그 모양인가?”

유복한 친구를 돌아다보면서 디오게네스의 정신이 알렉산더의 무력을 지배한 것입니다. 디오게네스의 정신과 초월함이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끌려다니는 아류들을 자비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원정을 앞두고 알렉산더는 델포이(Delphi)로 올라갔습니다. 델포이는 예언의 신 아폴론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신전의 문 상인방에는 “그노티 세아우톤” 즉 “너 자신을 알라”(Know

개를 수그리지 않아도 될 텐데 자네는 왜 그 모양인가?”

무기력한 거지나 다름없지만 디오게네스는 사기 충천한 그리스 원정군 종사령관 알렉산더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디오게네스의 정신이 알렉산더의 무력을 지배한 것입니다. 디오게네스의 정신과 초월함이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끌려다니는 아류들을 자비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원정을 앞두고 알렉산더는 델포이(Delphi)로 올라갔습니다. 델포이는 예언의 신 아폴론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신전의 문 상인방에는 “그노티 세아우톤” 즉 “너 자신을 알라”(Know

thyself)는 유명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폴론 신이 그 신전에 맡겨 놓았다는 뜻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전에 이른 날은 공교롭게 애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부하를 신전에 들여보내 여사제(예언자) 혹은 퓨티아에게 종사령관이 탁선, 곧 신이 맡겨 놓은 뜻을 받으려 왔다는 사실을 알리게 했습니다. 잠시 후 부하가 나와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여사제는 신전의 범에 따라 애일에는 신이 맡겨 놓은 뜻을 전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알렉산더는 부하를 다시 들여보내 우격다짐으로 여사제를 끌어내게 했습니다. 끌려 나온 여사제는 사령관 앞에서도 탁선을 전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알렉산더는 여사제를 끌고 신전으로 들어가 다리가 세 개인 걸상에 앉았습니다. 텔포이 신전 중앙에는 연기가 솟아오르는 조그만 구멍이 있었는데, 여사제가 연기 구멍 위에 이 세 다리 의자(Tripous)를 올려놓고 그 위에 앉아서 연기를 들이마신 후에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사제는 알렉산더의 열성에 감복했다는 듯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질 줄 모르는 사람이군요.” 탁선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낸 셈이 된 알렉산더가 응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고 싶어 하던 신의 뜻이오.”

세계 정복의 꿈을 가졌던 알렉산더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됩니다. 역사는 물질이 아닌 정신에 의해 지배됩니다.

알렉산더의 원정군은 역사가에 따라 주장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삼만 오천 명의 보병과 삼천오백 명 정도의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변변치 못한 군자금으로 원정에 나서면서도 왕실 재산을 군자금에 보렐 생 각은 하지 않고 참모의 가족들에게 고루 나누어주고는 손을 털었습니다. 이를 못 미땅하게 여긴 귀족 출신의 참모 페르디카스(Perdicas)가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히께서는 빙탈티리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더가 대답했습니다. “천만에, 아직도 내게는 희망이 있소.” “그렇다면 저도 재산 대신에 그 희망이라는 것을 좀 나누어 받겠습니다.” 페르디카스는 왕이 하사한 재산을 반납했습니다. 그자 왕은 페르디카스가 반납한 돈을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미처 나누어주고는 다시 손을 털었습니다.

후일 페르디카스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 대 헬라 제국의 섭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누어 받은 희망의 열매가 어찌 어리석은 사람들이 받은 한 상자의 돈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렉산더와 페르디카스는 눈에 보이는 작은 재물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멀리 나다보면서 보다 큰 성공에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이름을 역사에 깊이 새겨 수천 년이 흘러도 지울 수 없게 만든 것, 그것은 바로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큰 꿈과 기상을 품고 미래를 내다 본 정신에 있었습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제공

교회오빠

착각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천년, 만년이 될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여도 자신은 영생불멸의 삶을 살 것이라는 착각에 삽니다.

이 시편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을 “수고와 슬픔 뿐이다”라고 합니다.

짧은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을 멋있고 기쁘게 산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슬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

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죄값으로 근심과 걱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어떤 이는 있는 자식으로 고통과 근심에 쌓이며, 어떤 이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창세기 사십칠 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 왕에게 죽을 때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를 물으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삼십 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어느새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골산 봉목사 제공

하나 혐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보면 백삼십 년의 생은 긴 세월이지만 야곱은 긴 생도 순간에 지나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이 백 살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백오십 년의 여생이면 지난루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산다 하여도 어느새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하늘나라

코리텐 봄 역사의 기적

코리텐 봄 역사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석방된 이후 세계를 순회하며 전도하는 여성입니다. 아직 러시아가 소련 공산 체제 아래 있을 때에 그녀는 성경을

가방에 가득 담아 가지고 소련에 가서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이 계획이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방 가득 채워서 소련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느덧 비행기는 소련에 도착하였고, 모든 탑승객들은 세관에서 짐 검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코리 역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손에 땀이 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하나님께서 세관원의 눈을 멀게 하셔서 가방 속에 가득 담긴 성경을 발견하지 못하고 통과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

런데 갑자기 세관원 한 사람이 코리 여사를 보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할머니 짐이에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시는군요. 제가 좀 들어 드리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이 든 가방을 펼쳐보지도 않고 번쩍 들어서 택시 터는 곳까지 친절하게 옮겨 주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예수님 닷컴 제공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AIIC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의와 개인주의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 오소서 여호와께서 만

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사립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7:8-10)

지금 세상은 팬데믹으로 하나님주의는 개인주의와 다투고 있다. 개인주의의 방향에서는 오직 한가지만 선명해진다. 의로움을 향한 온전성을 추구하는 영역에 서만 이롭다.

각 나라와 민족이 추구하는 방향은 대체로 악하다. 이는 개인이 높은 자리를 통치하는 자리인 방백의 무리(상류층)에 오르면 악함의 메커니즘을 피할 수 없고 또한 각 개인은 커다란 민족과 국가의 요

구에 자신의 악함을 요구당한다. 때문에 대체로 개인과 방백과 국가는 그 뿐이 자기 이익과 욕망과 악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의인이 통치하는 나라와 개인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시편송연가수는 민족과 나라와 방백의 위치에서 판단을 내버려두고 곧 바로 개인 자신으로 먼저 돌아온다. 세상 것들의 총체가 하는 것과 개인인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이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것과 또한 오직 개인의 회심만이 개인과 사회를 다르게 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아위의 거룩하신 의를 쫓는 자신의 온전성을 만세상에 공개하여 나라와 개인을 회심의 나라로 털어 까발려 놓는다. 나라는 한 개인의 온전성에 의해 통치되고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온전성(통)과 정직(야사)

여기서 온전성(통)이란 결핍있는 자가 완전함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의로

움(페레크)을 양보하지 않는 것(통)을 말한다. 이 의로움에 대한 질주를 사람들이 보고 그의 모습을 정직하고 신실하고 일관성이 있는 자라 말하기도 하고 인데그 리티가 있다고도 한다.

한마디로 의를 향하여 자신의 결핍을 고통스러이 뚜벅뚜벅 멈춤없이 행진하며 내버려두고 곧 바로 개인 자신으로 먼저 자신의 악을 원통하게 여기고 괴로워하는 삶을 뜻한다.

괴롭고 가난의 삶은 양심에 의해서 일어난다. 의는 가질 수 없으나 의를 포기하지 않으나 결은 행실이 바르지만 속은 여전히 부자연스럽다.

양심의 수고를 계울리 하지 않고 정직에 있으니 마음을 일으키는 순결한 영인 갈망과 소원은 고양된다. 여기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고양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를 온전하다 여기신다.

심장(Heart)와 콩팥(mind)

몸이 경험하는 심장과 콩팥으로 하나님의 의는 나타난다. 심장은 본심이 같았

하는 진원지를 뜻한다. 사람의 생명 앞에 서 뜻하는 자기 의사다. 속생각이다. 콩팥은 감정과 감동과 마음의 쏠림이 일어나는 자리로 여겼다. 자기 의사의 샘을 뜻한다. 하나님은 여기 두 곳을 조사하신다. 몸과 생각과 마음이 한 통속이나 두 곳을 보라 하신다. 속생각과 욕망의 자리에 의로운 것이 있는가 보라 하신다. 그리고 그의 온전함을 평가하신다.

속생각과 마음 동요

개인주의는 심장과 콩팥을 조사하여 속생각과 마음의 동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살피기 보다는 이미 자신의 의견과 체화된 욕망이 세상이 알아줄만한 상품이 되어 화폐가치중심으로 무기화되는 힘을 과시한다.

개인주의적 자아와 하나님의 시선에 사는 자아는 그 자신과 그 자신을 이루는 세계와 나라가 각기 달라 이로써 모든

만물이 그의 시선에 따라 달라진다.

그 중심축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느냐

아니면 자아의 무게를 중시하는 시선에 있느냐 나누어 지는 갈림길이다.

개인주의는 의의 방향과 정반대에 있다. 단지 권력이 공정하게 개인에게 돌아 와야 한다는 관계적이고 수평적 의는 있으나 개인의 의로움을 이루는 수직적 의는 세속주의에서 한치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개인주의(땅)는 하나님주의(하늘)와 대항한다. 하지만 하나님주의는 한 개인의 영화로움과 그 독립된 영혼을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의 기독교는 지금 개인주의(수평적 의)와 다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수직적 의) 다투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수평과 수직에서 모두 악을 뿌리치고 이를 세우고 산을 이룬다.

◆이선종 지휘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BA)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 Christian Music(MCM)

Korea Presbyterian College of America(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Thm) 수료

Cantor, Music Pastor

카리타스합창단 음악감독/VKCC 지휘자/성서 번역가

찬미와 감사의 사람들



김영국 목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시103:1,2)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한 중요한 정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과 그가 주시는 은택을 해아려 알고 만족해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겪는 신앙생활이 마침내 하늘의 보상을 실감하기까지는 고통스럽게 견뎌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과 규제로 이루어진 기쁨이 없는 여정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는 아무런 기쁨이나 찬송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찬양과 감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에 대한 개인적 감사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매일의 은택에 대하여 구속함을 받은 창조된 존재로서의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만 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

인 의욕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수많은 은택을 기억하는 내용도 포함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3편에 기록된 그러한 “은택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

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

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

하기를 더니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

시도 자주 경제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땅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사에서 면 것 같아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아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면지뿐임을 기억하십이로다”

구약시대의 레위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평신도 제사장들(believer-priests)은 자신을 영적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なり”(롬12:1)

하나님께서 모든 평신도 제사장들로부터 받기 원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영적 제물은 찬양과 감사와 선행과 나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

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나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골13:15-16)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재능의 헌물(gift-offering)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의 가장 진솔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 만복의 균원이신 그분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찬미와 감사가 우리 모두가 열매이기 쉬운 우울함과 자기연민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일상의 해독제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의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찬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균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 Thomas Ken

Warm-Ups

“찬송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고,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곧 만복의 원천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 Thomas Ken

Warm-Ups

찬양한 노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마카스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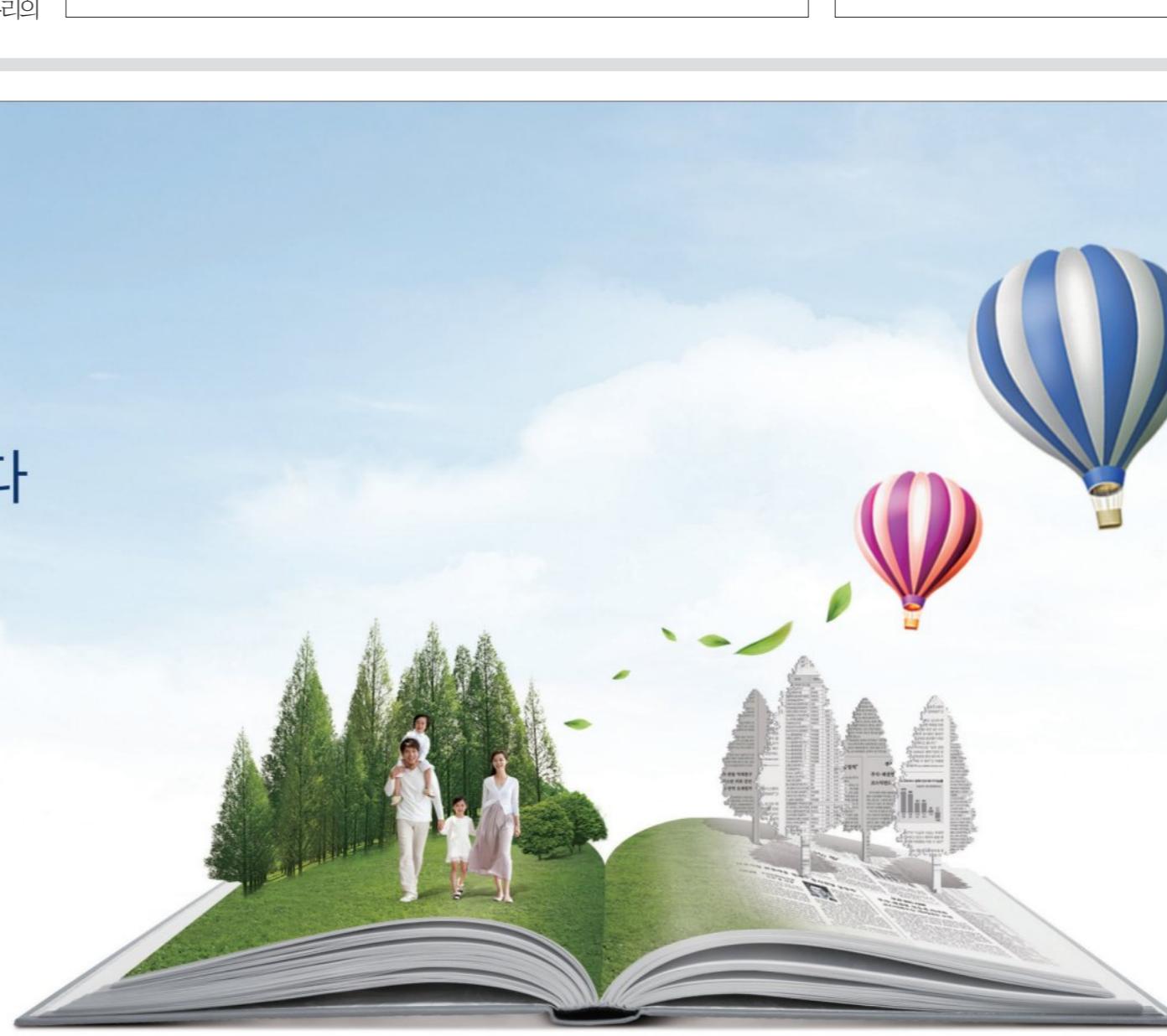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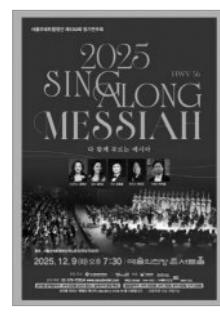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다 함께 부르는 메시아”… 헨델 탄생 340주년 기념 무대

오는 12월 9일, 서울모데트합창단
제130회 정기연주회



서울모데트합창단(상임
지휘자 박치용)이 오는 12
월 9일(화) 오후 7시 30분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에서 제130회 정기연주
회 ‘다 함께 부르는 메시아
(Sing along Messiah)’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헨
델 탄생 340주년을 기념해 관객이 직접 참여해
함께 노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3부(총 53곡)에 이르는 대작이다. 1부 ‘예언과 탄생’, 2부 ‘수난과 속죄’, 3부 ‘부활과 영생’으로 구성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한 구원의 모든 이야기를 그려냈다. 이 곡의 대본은 성경에서 자용한 가사로 찰스 제네스의 오라토리오 대본을 기반으로 쓰였다. 초연 당시 ‘할렐루야’의 합창이 울려 퍼지자 국왕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왕의 행동을 따라 모든 관객들도 함께 일어난 유명한 일화가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헨델은 시대를 넘어 후대 작곡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모차르트는 빈에서 연주를 하기 위해 메시아를 편곡하며 새로



올해로 창단 37년을 맞는 서울모데트합창단은 제130회 정기연주회 ‘다 함께 부르는 메시아 Sing along Messiah’를 공연한다(사진은 지난 공연 모습). ©서울모데트합창단

운 생명을 불어넣었고, 베토벤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합창 구성에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헨델을 ‘가장 위대한 작곡가이며 여전히 그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하며 그의 작품 ‘메시아’를 극찬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멘델스존은 바흐와 헨델을 깊이 연구해 그의 오라토리오 작품인 ‘사도 바울(1836)’과 ‘엘리야(1846)’에 바흐의 수난곡적 전통과 헨델의 오라토리오적 전통을 모두 흡수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1685년 같은 해에 태어난 바로크의 두 거장 헨델과 바흐의 탄생 340주년 되는 해이다. 서울모데트합창단은 지난 2005년 관객 참여형

음악회인 ‘Sing along Messiah’를 공연무대에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전곡 메시아를 포함해 약 20여 회의 메시아 공연을 해왔다. 올해 헨델 탄생 34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관객과 ‘다 함께 부르는 메시아’를 연주함으로 이를 기념한다.

이번 공연에는 소프라노 윤정난, 알토 김미순, 테너 유종훈, 베이스 이인규, 서울모데트챔버오케스트라 등이 함께 연주한다.

올해는 서울모데트합창단이 관객과 함께 따라 부르는 ‘싱어롱’ 무대 20주년으로 싱어롱 관객참여석(A석)에 대한 20% 할인 제도가 마련됐다.

백선영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시변예배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25 가정과 지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 생방송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강단 연동(김주용) 30 TV강단 한마음(김승룡)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정은주 목사(예원교회) 30 생명의 말씀-백용현 목사(대전한빛교회)	20 힐링스토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5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 30 세례의 언약 (소강석)(911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55회) 50 리비아츠 워십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50 생명의 말씀-신용수 목사(용인비전교회)	10 신의 2주 20 행복한 쉼터 LA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50 행복한 쉼터 왕성교회 길요나 목사	30 휴먼네컷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483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63회)	00 포도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문훈 목사
	8:00 20 백설기	20 솔직한 새끼들의 토크쇼 저 새끼양 40 다큐 더 로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이종훈 목사(구덕교회)	00 하나님의 음성(76회) 20 CBS 성서학당 (신우민)(3370회) 출애굽기 33강	00 비전메시지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 30 비전메시지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9:00 20 더 메시지 시즌4	00 사랑의 메시지 여의도침례교회 국영호 목사 3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 비전특강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소2	10 새롭게하소서(10103회) 최서형 장로	00 믿음의 리액션(4회) 강원도 영월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10:00 10 지금, 선교해YOU	30 우리들의 지식살롱	20 [특집 다큐멘터리] 땅 끝의 증인들	00 CBS NEWS 10 20 더 콜링(136회) 50 살롬 쌀롱(9회)	00 강연소 통(35회) 한국교회를 기록하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1:00 00 한국교회를 論하다 50 김지연의 중독전쟁	00 행복한 쉼터 옥길교회 임재호 목사 30 행복한 쉼터 제주동홍교회 박찬건 목사	1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50 예수동행일기	00 올포원(683회)	00 소문난 성경교실(578회) 오태현 교수 세 번째 16강 박물관에 서 말씀을 발굴하다 : 메르嫉妒 석비 30 선교는 지금(54회) 양평 예수목자교회
	12:00 00 CTS 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한별 목사(대치순복음교회)	00 GOODTV 뉴스 30 오병이어교회 금요성령총만집회	10 바이올 필름 <누가복음> 2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	00 TV강단 구세군대한본영 30 TV강단 만리한성결(조준철)	20 말씀의 창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 50 말씀의 창 영광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오후	13:00 00 생명의 말씀-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30 내 영혼의 친구	00 예배실황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잘 믿고 잘 사는 법(309회) 2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25회)	20 성자가 좋다(503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4부 50 오정현 목사의 운전한 은혜로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이웅조 목사(갈보리교회)	00 말씀의 힘 신일(배요한) 30 새롭게하소서(11359회) 이성근 선교사 1부	00 THE 궁금(36회) 천사 4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00회)
	15:00 40 7000미라클 - 스페셜	00 예배실황 지구촌교회 서울	0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배요한)(4379회) 기독교 신앙, 그 깊이와 넓이 15강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김미열 목사(원주중부교회)	00 사랑의 메시지 분당선교교회 윤귀현 목사 30 행복한 쉼터 송천교회 권준호 목사	00 하우즈 목사의 오한복음을 강해 40 바이올 필름 <누가복음> 50 [말씀] 박원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2회)	00 내 삶의 행복(180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수영로의 시간 성령집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강승우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톡톡 10 행복한 쉼터 군포성산교회 김자현 목사 40 행복한 쉼터 전주남성교회 안효관 목사	3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리루교회)	10 친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66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934회) 50 행복다이어리(577회)	00 말씀의 창 아신큰빛교회 김성권 목사 30 말씀의 창 LA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18:00 00 백성의 시간-장충현 총장 30 주성민 목사의 주님길 50 신앙에세이	10 백성대학교 진리의 시간 40 힐링스토리 50 더 메시지	10 THE NEW 하늘빛향기 50 시가 러브소나타	00 TV강단 악대(송규의) 30 이음 목사의 말씀의 맥(39회)	00 글로벌 신앙토크쇼 웃즈업(36회) 현금 날 때마다 생각이 많아 여요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19:00 00 찰스 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순길 30 생명의 말씀-정의호 목사(용인기쁨의교회)	00 사랑의 메시지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30 사랑의 메시지 새은혜교회 황형탁 목사	50 시가 러브소나타	00 TV강단 길튼(채성렬) 30 TV강단 베다니-(곽주환)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20:00 00 생명의 말씀-유승대 목사(은평성결교회) 30 생명의 말씀-여주봉 목사(포도나루교회)	00 2025 다니엘 기도회 생방송	50 시가 러브소나타	00 CBS 비전특강 박관 목사의 성서적 전인치유 50 CBS 교회소식(1023회)	00 장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40 성자가 좋다(503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4부
저녁	21:00 00 CTS 스페셜 50 CTS 뉴스 W	00 2025 다니엘 기도회 생방송	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00 극우의 그들을 넘어 복음의 빛으로	10 이석 목사의 읽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32회)
	22:00 20 CTS 특선다큐-기독교 이천년사	00 GOODTV 뉴스 20 GOODTV 시네마 미라클 헤븐 2부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임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00 CBS NEWS 10 20 올포원(682회)	00 채널 매거진 굿데이(33회) 20 금요성령집회 제자광성교회
	23:00 00 윤호균 목사의 CTS 금요질야예배 50 은혜로운 찬송가이야기	20 오���교회 금요질야	10 [컨퍼런스] 앤디피티드 40 생명의 삶 50 바이올 필름 <누가복음>	20 CBS 금요질야예배 (새마을교회)(873회)	10 금요질야예배 수영로교회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20 우리들의 지식살롱 50 더 깊은 올림 여의도침례교 수요 워십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 KGMLF	10 새롭게하소서(1103회) 최서형 장로	00 새에덴 철야예배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00 00 백설기	1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00 2025 회복축제 <온전함> 4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00 산위의마을 말씀 (김영준)(262회) 50 사랑의 말씀 (오정현)(1024회)	00 비전메시지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 50 리비아츠 워십
	2:00 00 TV찬양예배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1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40 이영훈목사의 말씀과 함께(583회)	00 말씀의 창 필그림선교교회 양춘길 목사 30 오정현 목사의 은전한 은혜로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15회)
	3:00 00 7000미라클 - 스페셜 50 이영훈 목사의 힐링송	1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Craig Goeschel's Ever Wonder Why? 3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10 새롭게하소서(1135회) 김기중 목사	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다위 목사
	4:00 00 찰스 스탠리 하나님의 시선 2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30 CTS 경건예배 45 광선희 목사의 예수소망의 삶	00 비전설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3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장맛비	10 [말씀] 박신웅 목사(얼빈이언노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스페셜 (김지철)(3792회)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성지지수 13강 50 CBS 교회소식(1023회)	0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www.booyoung.co.kr

부  영

사랑이 가득한 집!



신규 분양단지

부산 신항 마린애시양 055-552-8245
484세대 분양!

신규 임대단지

태백 포레스트 애시양 033-552-8245
1,226세대 임대공급!

광양 목성지구 파크뷰 부영 061-762-8245
1,064세대 임대공급!

‘사랑으로’ 부영

분양·임대단지 문의 1577-5533

분양단지

■ 남양주 도농애시양 031-564-4040 ■ 남양주 진접 031-564-4040

임대단지

■ 남양주 월산1·2단지 031-595-6946	■ 나주 1·2차 061-337-4025
■ 화성행남9·10·11단지 031-8047-6285	■ 순천 1·2·5차 061-741-4025
■ 부산신호1·2·3·5차 051-832-5317	■ 목포 1·2·3·5차 061-284-4025
■ 김제 1·2·3·5차 063-547-0922	■ 화순 1·3·5·6차 061-373-4025

*본 광고에 사용한 이미지 및 내용, 문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 (주)부영주택